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범위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제도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원시사회의 인류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현상과 유해 동물, 그리고 다른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느냐 고심하였다. 고대사회의 인간은 자기 부족의 구성원으로 부족의 안녕과 단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를 종족으로부터 추방하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Wilds, 1956).

장애인은 악령이나 귀신이 붙은 존재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편견과 미신은 민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대사회의 극단적 편견에 사로잡힌 장애인관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김병하, 1985). 그리스인들은 장애인을 산야에다 내다 버리거나 자살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리쿠르구스(Lycurgus)' 법전에 따라 아름답고 건강한 신체에 가치기준을 둔 나머지 장애인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보고 스파르타의 번영과 부강을 인간의 최고 가치로 판단하여 장애인을 산야에 유기하기도 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도 농아자(聾啞者)는 떼베레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또 귀족계급의 연회석상에서 노리게 역할을 하도록 쇼맨으로 등장시키기도 하였다(Heck, 1953).

유엔은 1981년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기치로 하는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유엔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는 장애 문제를 재활이나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장애인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무비판적 편견과 차별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사회에서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거 없는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그리고 고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능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편향된 시각과 차별적 대우를 감당해야 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와 각종 인권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이들의 권리가 다소 증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차별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나 편견은 꾸준한 교육 활동과 사회 계몽을 통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장애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엄연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다. 사회정의를 실현되고 장애청소년이 일반청소년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똑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정부의 주요 정책 중 대부분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각 소외계층에 대해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에서 펼쳐져 온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그 동안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청소년층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에 대해 다소 소홀히 대해 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다른 정책에 비해 밀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처우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나 정책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장애청소년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정책 대상 집단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제야말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사회정의 구현과 복지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등과 같은 소외청소년에게도 일반청소년과 같이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현실과 주위환경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및 청소년기관·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애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그 목적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즉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장애청소년 지원 사업이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입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골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정부의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장애청소년들로 하여금 최적의 수련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소외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1)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실태조사

이 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등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의 내용, 지원방식, 지원규모,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장애청소년 자신과 이들을 지도하는 특수학교 교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장애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 등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현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고자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 구성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행되고 있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현황과 수련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2) 정부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방식과 규모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주된 지원방식은 어떠하며 지원규모는 또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3) 수련시설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

주요 국공립 수련시설에서의 장애청소년 대상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체계를 점검해 본다.

(4) 기타 실태 및 문제점

그밖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련된 현재 실태는 어떠하며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문제시되는 점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욕구조사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여만 명의 장애청소년을 지도하는 특수학교 교사,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련활동 욕구를 파악하였다.

장애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련활동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는 일은 현재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실제적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욕구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

(1)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

설문지를 통해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실시방법, 기간 등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조사한다.

(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방법에 관한 욕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에 임할 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수련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욕구를 알아본다.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상에 관한 욕구

각 수련활동 실시기관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장애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운영상의 욕구를 파악한다.

(4) 기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문제점 및 개선점

위에 나타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욕구 이외에 현행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3)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방안 수립

이상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실태파악과 욕구조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장애청소년 특성별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실시기간,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방법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방안 및 운영계획을 모색·수립하였다. 정부의 정책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1) 프로그램 구성내용 및 실시기간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주요 내용 구성과 구체적인 실시기간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효과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 방법

장애청소년 대상 정책적인 수련활동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한다.

(3)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한다.

(4) 외국의 장애청소년 대상 수련활동 자료 수집 및 분석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활동을 장애청소년들이 하고 있는지 수련활동과 연관하여 장애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5) 기타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 등

이 외에 장애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각종 정책과 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 참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구한다.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 장애인 정책,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수련시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동 등 각종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외국의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등을 연결하여 장애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 자료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처음 계획하였던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장애청소년 대상의 수련활동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서적, 그리고 시각적 자료는 그 수가 극히 드물었다. 많은 내용을 간단한 사업계획과 각 기관이나 단체의 소책자 소개자료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분석·검토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실태와 장애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수련활동의 내용,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실시 시기, 실시 기간, 실시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욕구조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국외출장을 통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 청소년, 특수교육 교사, 수련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장애학생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대상 장애학생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각종 제약 때문에 실시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3) 자문회의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장애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중심 논제를 가지고 장애인관련 단체와 학교, 그리고 수련시설 등지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장애관련 전문가 및 교수, 그리고 연구진 등 수련활동 및 장애청소년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의 방향, 설문조사 대상자 표집, 설문조사 실시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최선의 연구설계와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4) 전문가 워크숍

장애인 관련 정부 행정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볼 수 있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소외받는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증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을 위해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학계의 교수, 수련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장애청소년 지도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전문가도 참가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나아가 관련 행정부의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나 수련활동 전문가 및 장애청소년 활동지도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정책 도출을 위해 면담을 하고, 학교나 단체 및 기관의 장애인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연령범위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원과 같은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련활동에 관한 내용을 주요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또 외국의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소개는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현실적 여건의 괴리에 따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진국의 장애인 처우나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으로 삼아 참고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서비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각종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되도록 제외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이 연구가 당초 의도하였던 수련활동의 속성에서 다소간 벗어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
2. 수련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3. 외국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사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

1) 장애의 이해와 장애청소년

(1) 장애에 대한 개념적 논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장애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세 가지 개념은 손상과 불능,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각각의 용어가 담고 있는 기본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손상(impairment)’이라는 용어는 인간 개체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각손상은 시각조직이나 눈의 어떤 부위에 결함이 생긴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색맹이나 시야의 제한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불능(disability)’은 불구라고도 할 수 있는 말로써,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몸의 일부 또는 기능의 일부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이상이 생겨서 재생불능으로 판단되면 이것을 불능이라 한다. 예를 들면, 시각 손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활동능력에 객관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것을 불능이라 할 수 있는데, 색맹인 운전기사나 전기기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시각불능이 반드시 시각장애는 아니다.

‘장애(handicap)’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분야에서 개인이 불리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손상이나 불능은 개인적인 것이나 장애는 사회적인 것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인에게 존재하지만 장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장애청소년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았을 때 인간의 전체적인 면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그러하듯이 장애청소년도 부분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거나 장애를 지닌 청소년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부분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영역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기타 능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과의 공통점이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신체적 측면에서의 장애만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장애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경우도 모두 장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그러한 일반적 정의에는 정신적 특성이나 감각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행동 특성, 신체적 특성 등이 일반인의 평균에서 벗어난 경우를 일컫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 장애의 유형별 분류¹⁾

① 시각장애

시각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각장애라 하는데, 기능적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능력이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다.

1)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있다<개정 2001.1.29>. 즉, 특수아동의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으로 구분된다.

② 청각장애

청각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경우를 청각장애라 한다.

③ 지체부자유

손이나 팔, 다리 등과 같은 신체 한 부분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경우와 심각한 질환이나 의료적으로 이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지체부자유라 한다.

④ 정신지체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 정신지체라 한다.

⑤ 학습장애

듣기나 말하기, 읽기, 쓰기, 추론하기, 그리고 셈하기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경우를 학습장애라 하는데, 학습장애는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가장 최근에 주목하게 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대상자가 많은 큰 범주로 전체 장애영역의 절반 정도가 학습장애로 판단된다.

⑥ 정서장애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서장애라 한다.

⑦ 언어장애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의 기능적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언어장애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장애라 하기도 한다.

⑧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3) 장애유형의 확대

이상에서 살펴본 각각의 장애유형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을 실제로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장애로 인해 요구되는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2條 (障碍人の 定義)

- ① 障碍人は 신체적・정신적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
- ② 이 法の 적용을 받는 障碍人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障碍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신체적 障碍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障碍, 내부기관의 障碍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障碍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碍를 말한다.

한편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로 제시되어 있다.

[별표 1] <개정 2003.5.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癇疾障礙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수교육진흥법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의 영역을 더 넓게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하게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시간이 갈수록 장애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 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특수교육의 대상을 규정할 때 특정한 장애범주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범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하다. 미국 각 주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범주의 내용 범위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실제 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잠재성 장애인들까지 모두 장애인의 범주 속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 체계 내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소외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나 사회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며 장애인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4) 장애청소년 출현율

<표Ⅱ-1> 연령별·유형별 장애인 출현율

단위: %

	전 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0 - 9세	0.60	0.08	0.15	0.08	0.04	0.31
10 - 19세	0.89	0.17	0.14	0.10	0.04	0.33
20 - 29세	1.37	0.46	0.16	0.19	0.17	0.28
-	-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0 - 9세	-	0.33	0.12	0.00	0.00	0.02
10 - 19세	-	0.46	0.13	0.02	0.00	0.02
20 - 29세	-	0.46	0.05	0.10	0.02	0.02

*출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01), 통계청(2004)

장애청소년이 실제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장애청소년 출현율 산정하는 문제는 연구자에 따라 장애에 대한 정의의 변화와 애매성, 진단기준의 변화와 중복성, 조사대상자 표집상의 오류와 응답자의 반응, 그리고 ‘명칭붙임(labeling)’의 기피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정확한 산출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층인 9세에서 24세까지의 대상자 모집단에 맞추어 우리나라에 전체 청소년의 3.18%인 약 39만 5천여 명 정도의 장애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박영균 외, 1999).

<표Ⅱ-2> 장애별 청소년 추정인구

(단위 : 명, %)

연령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합계	
	출현율	추정인구	출현율	추정인구	출현율	추정인구	출현율	추정인구	출현율	추정인구	출현율	추정인구	출현율	추정인구
9	0.12	750	0.04	250	0.05	311	0.08	500	1.12	7,002	1.23	7,690	2.64	16,503
10~14	0.15	5,435	0.04	1,450	0.03	1,087	0.06	2,174	1.30	47,107	1.23	44,571	2.81	101,826
15~19	0.26	10,248	0.07	2,759	0.06	2,365	0.04	1,577	1.42	55,972	1.23	48,483	3.08	121,404
20~24	0.58	24,658	0.11	4,677	0.12	5,102	0.09	3,826	1.54	65,472	1.23	52,293	3.67	156,028
합계	0.33	41,091	0.073	9,136	0.071	8,875	0.065	8,077	1.41	175,553	1.23	153,040	3.18	395,761

*출처: 박영균 외(1999).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5) 용어사용에 대한 재고

영어권 국가에서 ‘장애인 혹은 장애아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던 ‘the disabled’, ‘the handicapped children’ 등의 일반적 용어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가 있는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 능력이 낮은 아동(children with low abilities),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children with special needs)’ 등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이 가지게 된 어떤 장애로 말미암아 ‘전인(全人)’을 장애인이라고 간주했던 보편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신체의 일부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은 여전히 한 인간 자체로는 존엄성을 가지며 또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장애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기준이 있다. 이를 확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중도·중복장애 등으로 나누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영재아도 특수아동의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용어 하나에 있어서도 장애에 중점을 두고 정의했던 과거의 용어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 자체보다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보다 긍정적 측면을 보는 그런 용어로 개편해 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최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differently abled pers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6) 장애의 발생원인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기별로 분류하면 출생 전, 출생 중, 출생 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자체를 정신적·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장애발생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II-3>과 같다.

<표II-3> 시기별 장애의 발생원인

발생시기	발 생 원 인
출생전	□ 감염과 중독 : 풍진, 매독, 톡소플라즈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약물, 독물, 담배, 카페인, 알코올, 납중독 등 □ 염색체 이상 :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X염색체 이상 등 □ 신진대사장애 :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장애, 성장호소장애, 핵산장애, 페닐케톤뇨증, 윌슨씨병 등 □ 뇌형성발달장애 및 뇌손상 : 뇌형성 결손, 세포이동결손, 신경내결손, 일차성소두증, 뇌손상, 뇌기능장애 등 □ 환경의 나쁜 영향 : 자궁내 영양실조, 약물남용, 모성질환, 임신중 방사선 노출 □ 원인불명 : 무뇌증, 소두증, 수두증, 수막척수낭류, 협두증, 신경피부증후군, 변성질환 특수형 등 □ 기타 : 생화학적 이상, 신경심리학적(시·청각적 지각 이상, 발음기관 손상, 정보처리 이상, 기억문제 등) 이상, 유전적 요인, 임신중독증
출생중	□ 외상 또는 신체적 원인 : 저산소증, 외상, 조산, 난산, 만산, 체중과다, 방사선 조사, 자궁내 장애(모성당뇨, 모성빈혈, 모성고혈압, 급·만성태반부전증), 신생아장애, 감염, 호흡장애, 두 개강내출혈, 신생아폐혈증, 영양장애, 기계적 손상에 의한 뇌장애 등
출생후	□ 뇌질환 : 신경섬유종증, 결절성뇌경화증, 스티지-웨버병, 헌팅턴씨무도병, 중이염, 척추와 뇌손상, 뇌성마비, 임균성 결막염, 트라코마, 종양,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의 감염 등 □ 환경적 요인 : 심리사회적 실조,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실조(가난), 학대, 가족 갈등, 학교생활의 실패, 사회환경적 요인 등 □ 감염, 열병, 발작 : 곰팡이 감염, 기생충 감염, 뇌막염, 뇌염, 기타 열병, 경련, 근경련, 간질 등 □ 기타 : 교통사고, 심장마비, 외상성 뇌손상, 정서적 문제

임신 중 산모의 영양이나 건강 상태는 태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변

수가 된다. 산모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도 태아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조기 흡연, 음주, 문란한 성생활,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등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장애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데에 심각성이 뒤따른다. 분명한 원인을 알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애를 유발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2)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었다. 계나 품앗이 등과 같은 미풍양속은 지금도 일부 농촌지역에 남아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는 우리의 좋은 전통을 한꺼번에 단절시켰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완전 경쟁사회가 되어 버렸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물리적인 환경에서조차도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이 없는 경우 또한 사실상 사회 속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격리가 정당화된다면 그 사회는 최악의 인권침해 현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국제기구는 장애인의 인권차원에서 그르고 사실상 생존의 조건

이기도 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낙인론(labeling theory)’이 우리 사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낙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치료와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장애인들을 ‘문제집단’이나 ‘문제를 가진 개인’으로 낙인찍어 결과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거의 반영구적인 보호대상자이며 또한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사회참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이 아무리 사회참여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의 ‘배제(exclusion)’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원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장애인들은 사회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연히 ‘격리(segregation)’된 생활환경을 취할 수밖에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참여를 거부하는 일반 사회와의 관계는 하나의 지속적인 갈등관계로 밖에 표현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방어력이 없고 힘도 없는 장애인이라는 격리집단은 힘 있는 다수인 비장애인집단에 의하여 계속해서 격리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 부정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과 장애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 참여란 장애인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방법으로 인격적 개인으로서 성공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참여이다. 참여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참여

가 아닌 가치 있는 참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없이 사회로 사람만 밀어 넣는 것은 참여이념에 맞지 않는다. 사람만 밀어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투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시민적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신분을 인정받아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참여는 장애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의 아홉 번째 권리로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또는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창조적 활동·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여 필요하든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에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기초로 UN은 1981년에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하면서 장애인의 경우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이 가능해야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기회에 있어서는

물론 결과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1980년대 초에 들어와 UN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 10년(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을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세계 장애인의 해’의 표어인 ‘완전참여와 평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 10년’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 속에 아직도 아태 지역에 속한 많은 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현실이 별로 진전된 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태 지역 장애인의 해 10년’을 선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2가지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했다. 열두 가지 행동계획에 사회참여를 위한 절대적인 요소인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행동강령은 통합교육의 이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공식, 비공식 프로그램에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문맹퇴치 및 교육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닌 아동과 성인이 교육체계에 참여, 주류화 하도록 지원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행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에 나타난 아홉 번째 권리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는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12.5>)'라고 규정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의 평등은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되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참여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청소년의 권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장애인 복지제도나 지원이 다분히 자선적 혹은 시혜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을 그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 정도로 가볍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을 단순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재활의 '소비자(consumer)'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의 마땅한 권리로서 받는 복지, 다시 말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은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입소나 각종 재활프로그램이나 혹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Albrecht, 1992).

적어도 장애인 지도자들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재활·복지사업과 프로그램 참여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장

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각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 권익운동의 핵심은 독립생활 이념이다. 즉,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서 독립생활로 그 철학적 기저가 변화되고 있다(Szymanski & Parker, 1993).

장애인의 독립생활 이념에 포함되는 것은 ‘탈시설화·탈병원화’와 함께 ‘지역사회중심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의 주역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독립생활운동의 이념에는 장애인도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때 사회참여는 가능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Albrecht, 1992). 장애인 지도자들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권리와 힘을 가지는 것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를 통하여 근본적인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 명실공히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

2. 수련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1)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수련활동

(1)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청소년정책이란 청소년에 관한 공공적 성격의 모든 정책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조성하며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총칭한다. 청소년정책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적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 수립·시행되어 왔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3a).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해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멀지 않아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주5일제에 대비해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인권과 참여, 주5일제에 대비한 창의적 청소년활동,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정화, 정책의 추진체제 정비와 범국민적 확산 등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 주5일제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청소년 활동 시설확충과 운영활성화,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활동 지원 및 특성화·다양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창조적인 사이버문화 진흥,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등은 과거의 정형화된 수련활동을 대체하는 진일보한 청소년활동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사업으로 시범 수련거리 개발과 보급, 그리고 소외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등은 정부가 공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b).

(2)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장애청소년관련)

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및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다양한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실시

○ 지리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청소년의 문화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②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청소년문화축제 활성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장애청소년 등 소외청소년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 소외청소년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농어촌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외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한다.

○ 초청공연, 찾아가는 공연, 일반청소년과 장애청소년간의 공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③ 청소년의 정보능력 개발

청소년이 단순한 정보소비자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청소년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 정보소외계층 청소년 정보화 지원 사업

○ 정보소외계층 청소년과 IT기업 연계를 통한 현장체험(진로 멘토링 등) 기회를 확대한다.

○ 농어촌 청소년, 복무 청소년 등 주된 정보소외계층 청소년별로 정보교육 참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청소년을 위한 IT직업 전문가 양성 및 직업개발 및 창업 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④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⑤ 장애청소년 통합교육과 취업확대

- 특수학급의 경우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개선하고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과목에서 비장애인과 통합 수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고용상의 차별 철폐를 제도화한다.

⑥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 제공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지원한다.

⑦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통합교육 강화

-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여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

현재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수련활동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수련활동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즉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우기 힘든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지역 사회나 자연 속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체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3b).

청소년은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효과적이고 유목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하며, 수련시설 또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현황

구 분	생활권 시설		자연권 시설		유 스 호스텔	전 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공공(시·도)	100	142	36	19	11	308
공공(교육청)	11	-	35	107	-	153
민 간	4	8	114	25	62	213
총 계	115	150	185	151	73	674

*출처: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3a)

우리나라에서 현재 설립·운영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 총 674개의 각종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설립 형태별로 보면 생활권 수련시설이 265개, 자연권 수련시설이 336개,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73개이다. 또 설립 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이 461개이고 민간시설이 213개로서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2배가 넘는다.

2) 수련활동의 목적과 효과

(1) 수련활동의 목적

수련활동의 목적은 크게 보았을 때 교육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의 일반적 목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김윤식(2003)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자아실현,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전인교육이라 하였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 제도적으로 도입·정착되면 청소년 수련활동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주5일제 수업의 실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될 학교교육 정책과 수련활동의 방향은 상호보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성장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체험적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 수련활동의 주요 특성은 각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적성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사람을 길러 내고자 하는 활동이다.

(2) 수련활동의 효과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므로 발달기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자아실현이나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 그리고 전인교육 등은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수련활동은 한 사람의 발달경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연과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인간성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을 통해 폭넓은 체험을 하게 되며 잠재되어 있는 자기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박혜정, 1997).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로는 즐거움과 야외에서의 배움, 전인적 성장, 여가적 의미, 건전한 놀이, 그리고 생활지도 등의 뜻이 있으며, 수련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 자아상 확립,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 민주시민의식의 배양, 건전한 여가활용, 그리고 청소년문제 및 비행의 예방 등이라 할 수 있다(안현옥, 2001).

3)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1) 청소년수련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 모든 공공수련시설의 설치시에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4.12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국가지원 수련시설 건립시 장애청소년 편의시설 설치의무 부여(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

나. 기존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개·보수시 장애청소년 편의시설을 적극 보완한다.

(2) 이용제도

- 이용제도는 관리의 용이성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의 편리성 위주로 정한다.

(3)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규칙 제23조의2, 신설)

- 공공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수련비용은 가급적 민간 수련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경제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범 청소년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정 사업’에서의 기존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편의시설과 관련된 항목, 즉 장애청소년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각종 시설 배치의 적절성의 평가방향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시설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가요소에는 이용자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시설배치 노력과 전체 동선의 합리성과 편리성을 평가하게 되어있지만 장애청소년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2003년도에 실시한 ‘시설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워크숍에서 장애편의시설에 관한 지표의 보완이 건의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수청소년수련시설을 지정하는 지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지침,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의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연수와 같은 보수교육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련시설의 운영 기준으로 채택되게 하여야 한다.

위에 적시한 2003년도 ‘시설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안전·위생 및 대외연계에 있어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대부분이 잘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수련활동기반 및 장비에 있어서는 최근 설립된 시설들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된 지 5년 이상 되는 시설에 있어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입구 경사로 등 리모델링과 기자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문화관광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03).

<표Ⅱ-5> 시설평가 평가지표 중 시설기반 및 안전관련 지표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Ⅲ.수련 활동기반	5.시설확보, 활용, 관리	5-1.시설활용도	
		5-2.시설공간 확보율	
		5-3.시설배치 및 장비관리 상태	5-3-1.각종 시설 배치의 적절성
			5-3-2.프로그램장비의 확보, 활용 및 관리상태의 우수성
		5-4.시설운영기간	
Ⅴ.시설안전 및 위생	7.시설안전	7-1.시설안전관리	7-1-1.시설이용자 대상 안전관리적절성
			7-1-2.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수준
		7-2.안전보험현황	
		7-3.안전장비	7-3-1.각종 안전설비·장비 관리 운용의 실적
	8.시설위생	8-1.시설위생	

*출처: 2003 시설평가 매뉴얼/평가지표 참고

3. 외국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사례

2003년도에 확정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소외계층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등 소외청소년층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소외청소년 수련활동 특성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은 장애가 고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잔존능력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주류 속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 수련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다소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 특히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연구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기 외국의 장애청소년 활동에 관한 자료 검색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북미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미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장애아동을 위한 캠프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과 유사한 성격의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위한 아동건강(Kids Health for Parents)」이라는 단체가 마련한 장애아동을 위한 캠프 탐색 지침에 의하면 미국의 장애아동 캠프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http://kidshealth.org>). 첫째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동시에 참가하는 통합형 캠프이고, 둘째는 장애아동만 참가하는 분리형 캠프이다. 캠프에 관한 한 사실 모든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많은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이는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모든 캠프에서 적합한 편의시설(예를 들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장애아동이 캠프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최대 잠재력을 위한 아동 연합 (CAMP)

1979년도에 「최대 잠재력을 위한 아동 연합 (Children's Association for Maximum Potential: CAMP)」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범위의 레크리에이션과 재활, 교육, 그리고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http://www.serve.com>).

이 단체의 중심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의료적 요구 정도에 관계없이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큰 격차를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것은 또 장애아동의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잠재적 보호 제공자를 훈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실천되기도 한다.

(2) 절단장애 아동 캠프 (Amputee Children's Camp)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절단장애 아동 옹호단체인 「ACT(Amputees Coming Together)」는 신체에 절단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25달러의 참가비가 요구되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절단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참가비가 면제된다(<http://www.amputee-coalition.org>).

(3) 절단장애 청소년 캠프 (Adolescent Amputee Camp)

이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콘오퀴(Kon-O-Kwee) YMCA 캠프

프장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일주일 동안 수영과 하이킹, 로프, 실내 암벽 등반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내·외 활동에 참가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피츠버그 대학(The University of Pittsburgh)의 아동병원이 8세에서 18세의 아동에게 이러한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모험캠프 (Adventure Camp)

6세에서 20세까지의 어린 절단장애 아동은 버지니아 주의 샤를롯츠빌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arlottesville)의 아동병원으로부터 캠프 조정자인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통해 3일 동안에 걸쳐 실시되는 모험 캠프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다. 이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예를 들면 수영이나 낚시, 하이킹, 배구, 승마 등이다. 이 캠프는 보통 매년 8월 첫 주에 시작되는데 5달러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5) 승리캠프 (Camp Victory)

이 캠프는 장기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컬럼비아 카운티에 설립되었다. 이 캠프에는 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되어 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며 애완동물원, 카지노, 재능 쇼 등과 같은 활동이 전개되는데 주말 프로그램과 주중 프로그램이 있다.

(6) 학습장애 여름캠프(Learning Disability Summer Camp)

「성공지향 성취실현(Success Oriented Achievement Realized)」이라는 단체에서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지향 모험캠프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열리는데 이 단체에서는 학습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특성화하여 운영한다.

(7) 귀뚜라미 캠프(Camp Cricket)

「귀뚜라미 캠프(Camp Cricket)」는 매년 7월과 8월에 6세부터 14세까지의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통합캠프이다. 이 캠프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캠프 참가자들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능력 수준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캠프는 지도력과 사회생활 능력 및 개인 독립생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2) 호주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1) 장애인 참여

오늘날 호주의 많은 스포츠 단체들은 장애인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크리켓, 실내 축구, 테니스, 운동경기, 농구, 배구, 수영 등의 종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1991년 호주 연방정부는 여러 주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1986년의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의 원칙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의 참여기회를 발달시켰다. 여러 주에서 관광사업, 스포츠 및 관련 영역의 주 담당 부서가 평등성을 개선하고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하나의 단위로 형성되었다.

(2) 장애인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의 한 측면으로서 레크리에이션이 일반 지역사회 내에서 그 인식도가 상당히 낮았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면에서 주거, 건강관리와 재활이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어 왔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지역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기숙시설에 보내도록 권고를 받았다. 지방의 부모들은 거리나 부적절한 서비스로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애인에게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기회들이 산발적이긴 하지만 생겨났고, 이를 후원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났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장애인을 레크리에이션과 여가활동에 참여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증가되어 왔지만, 지난 5~10년 동안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주요한 계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주/지방 정부에 위임한 ‘연방/주 협의서(Common Wealth/State Agreement)’에 서명한 사건이 변화이다.

예를 들면, 퀸즐랜드 주에서 가족 서비스 및 원주민과 섬 주민 관련 부서(현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는 장애인들의 스포츠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인 연방정부의 발의안도 제시되었다. 다음에 호주의 장애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 낸 최대의 성과는 장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영역에서의 고용의 증대라 할 수 있다. 1991년의 보고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은 적법한 연구영역이 되었고 대학 졸업자들은 이 분야의 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체력 단련 지도자 양성과정에서도 지역사회 클럽과 체육관에 장애인의 참여에 초점을 두는 과목을 포함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이다.

신체적인 활동에 초점을 둔 대학 프로그램들도 점점 보편화되었고, 인간 운동 연구 대학원 과정도 이전보다 장애에 관한 인식과 배경 및 정보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장애인의 레크리에이션 요구의 평등한 개발이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3) 미션 오스트레일리아(Mission Australia)

호주에는 미션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단체가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에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 모험 활동(adventure based programs), 그리고 정

보 및 의뢰 서비스(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를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서비스로는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음악 산업 기술, 학교 공휴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업가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www.active8.on.net).

미션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하는 '활동8(active8)'이라는 청소년 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개인적 발달과 기술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개인적 발달은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 의사소통, 협상, 갈등 해결, 긍정적 가치와 태도, 그리고 시간 관리 등이 해당된다. 또 지역의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멘토링 기술도 개발된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예, 학교나 지역사회의 청소년 센터)은 프로그램을 조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 실시지역, 재정 관리, 복장, 교통 및 운송, 프로그램 실시장소와 시간, 행동 규칙 등이 그것이다.

(4) 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

호주에서 장애인에 대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의 기회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애인, 사회봉사 단체, 연구자와 전문적인 후원자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도 장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의 가장 적극적인 촉진자는 철학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모든 호주의 스포츠 수준으로 완전통합하려는 목적 하에 1986년 설립된 「지적장애인을 위한 호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Australian sport and Recreatio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 AUSRAPID)」일 것이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호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는 「정신장애·지적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연맹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Handicap Intellectual disability)», 「국제 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s Committee)», 「국제 올

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제휴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에 선수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AUSRAPID와 그 주의 지부는 클럽과 단체에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스포츠위원회(National Sporting Associations)」와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모든 수준의 참여과정을 지원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지도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능력개발 프로그램

호주의 ‘능력개발 프로그램(Aussie Able Program)’과 ‘호주 스포츠 위원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에 의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스포츠에 주어지는 지원을 형성함으로써, 여러 운동 단체들은 장애가 있는 참여자와 선수의 요구를 담당할 다양한 스포츠 기구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태도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퀸즐랜드 주의 Q-RAPID, 휠체어 스포츠(Sporting Wheelies), ‘장애인 레크리에이션 협회(Disabled Recreation Association)’와 같은 기구에서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훈련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장애인 훈련 운동 프로그램이 여러 주와 지역에서 통합 운영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인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훈련방법과 그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다.

(6) 스포츠 아카데미와 스포츠 연구소

전국의 여러 ‘스포츠 아카데미’와 ‘호주 스포츠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Sports)’에서는 우수 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우수 선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참여와 경쟁을 고무시키고 있다. 1992년 스페인 장애인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지적장애 선수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경쟁을 벌였다. 호주를 대표하는 최초의 팀에 포함된 5명의 퀸즐랜드 주 선수와 다른 주의 장애인 선수들은 주와 국가의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받았다.

1992년 지적장애 선수 팀은 다른 지체부자유 및 시각장애 선수들과 함께 태평양 학교 게임에도 참가하였다. 전국의 지체장애 교육 교사들은 이 게임에 이어서 지방과 지역사회 행사에 이들이 계속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즉, 지체부자유 학생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도 높은 비율의 장애인들이 선택한 지역사회 중심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활동들에 대한 태도 면에도 또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7) 예술 주간 프로그램

전국적인 예술 주간프로그램에서 ‘예술 능력(art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시, 음악, 그림, 드라마에서 장애인의 소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 아마추어와 전문 예술 협회는 이러한 영역들에서 많은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1991년 호주 브리즈베인의 「하모니 가든(Harmony Gardens)」에는 영구적인 옥외 조각물 하나가 세워졌다. 이 뛰어난 예술품은 일반 및 장애예술가들의 3개월에 걸친 공동 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글쓰기나 서커스, 무용, 인형극 워크숍 등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다.

요즈음은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훈련과 진로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확장하고, 특정 직업에 필요할 수도 있는 개인적 속성을 고려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과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술 사이의 연결성을 아는 것 등을 포함한다.

1991년 ‘의무교육과 훈련 이후의 젊은이의 참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호주 교육위원회 재검토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핀(Finn) 보고서」라 알려진 이 문서는 교육을 직업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문서는 제안을 형성 제시함에 있어 장애청소년의 요구를 중요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장애청소년의 교육적 참여를 재검토하고, 장애학생을 다음의 교육과 훈련 선택으로 이끄는 중등학교에서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결여, 의무교육 시기 이후에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전환계획의 결여, 학교에 등록된 장애학생과 미래의 교육과 훈련 선택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과 「기술 및 평생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기관 사이의 불충분한 연계성과 같은 장애물을 확인하였다.

경도장애 성인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경쟁고용 시장이나 상황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지만, 지원요구가 높은 장애를 지닌 경우에는 주로 사립 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적은 ‘급여’를 받는 작업장 혹은 직업 센터의 ‘고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매우 높은 요구를 지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너무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기술에서 기본적인 훈련과 가끔 관련된 활동에 참가하는 활동 센터에 배치된다. 이런 서비스 요원들은 주로 일보다는 사회성에 더 초점을 둔다.

(8) 자원봉사 친구 프로그램

‘자원봉사 친구 프로그램(Volunteer Friends Programs)’은 호주의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성인들 간의 직접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우정의 유대를 형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한 성인과 지적장애인을 맺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 친구는 정기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방문하고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들이 의논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

퀸즐랜드 주의 자원봉사 친구 프로그램의 개념은 「지적장애 시민법(Intellectual Disability Citizens)」에 포함되어 있다. 자원봉사 친구는

동료 파트너의 최선의 관심에 의해 행동해야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후원해 줄 수도 있다. 퀸즐랜드 주에서의 자원봉사 친구 프로그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매우 성공적이다.

자원봉사 친구 프로그램을 통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123쌍이 친구로 맺어졌다. 지속적인 접촉기간은 친구를 맺는데 취해지는 관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원봉사친구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12쌍의 우정관계는 8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쪽 모두의 사회적 접촉의 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된 재정 자원과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3년 동안 자원봉사 인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의뢰된 500여 명에게 친구를 찾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북유럽 국가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1)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도 역시 거의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 교정지도를 받고 있으며, 1997년도 이후 중증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다.

핀란드는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요구아동을 통합시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특수교육이 보다 이로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을 위한 5개의 국립특수시설과 6개의 훈련센터가 있다.

핀란드는 전국적으로 약 29,000여개의 스포츠시설이 설립되어 있는

데 이는 인구 175명당 1개의 스포츠시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에 약 60,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핀란드에 아동복지 단체인「매너하임 리그(Mannerheim League for Child Welfare)」가 있다. 매너하임 리그는 회원자격이 모두에게 개방된 비정부조직으로 핀란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지재단으로 약 95,000여명의 회원과 전국에 564개의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방조직의 활동은 전국의 13개 지구별 조직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이 단체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동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모든 아동은 훌륭하고 행복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아동양육과 교육은 존중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봉사활동과 원조, 보호, 그리고 공동책임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한다.

(2) 스웨덴

유럽에서도 가장 진보된 형태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정상화와 통합화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단일 전문기관도 비현실적, 차별적이라 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82년에 제정된 「사회적 서비스법」에 의거 장애인도 ①경제적·사회적 보장 ②생활조건의 평등 ③공동사회 생활에의 적극적 자기결정과 ④개인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경 등의 서비스를 보장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포괄적이며 거의 완벽한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 교통통신, 사회복지, 가정원조, 스포츠,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의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실례로 항구적으로 소득능력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구성원 외의 사람으로부터 간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가적 급부가 지불되고 있다. 그리고 교통서비스나 ‘홈헬퍼(Home Helper)’의 원조도 현물 급부 형태로 교부되고 있다. 기동성, 시력, 청력 또는 기타의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기술적 원조들을 무료로 마련해 줄 의무가 지방당국에 부과되어 있다. 1967년부터 장애인의 주택개조에 필요한 주택보조금을 국가에서 교부하고 있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가옥내의 설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25개의 민간 장애인단체가 협력기관으로 보조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하여 ①장애인 운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②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③장애인의 체험이나 요구를 정부가 잘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하여 스웨덴은 기본입법 없이도 복지국가의 최후 과제인 장애인복지를 완성하여 장애인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등에서 가장 잘 통합하고 정상화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박을중 외, 1995).

2000년 「환자에서 시민으로: 장애인정책 국가실행계획」이라는 정부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스웨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목적은 장애인을 지역사회 생활에 완전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Mekibes, 2004). 스웨덴의 장애인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스웨덴 장애인협회 (De Handikappades Riksförbund: DHR)

「스웨덴 장애인협회(DHR)」는 이동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민주 단체이며 어느 정당이나 종교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이동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로비활동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② 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장애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장애인다이버협회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다. 스쿠버다이빙의 목적은 신체장애인에게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통해 물 속의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교수활동, 다이빙 지도교사, 수중활동 보조자 등이 필요하다.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한 국제 조직은 1993년도에 조직되어 스칸디나비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다이버 교사 양성과정을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도자 양성과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척추장애, 지체절단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Parry, 1996).

(3)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장애인 정책은 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이해를 기초로 개인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두고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요구는 사회 모든 분야에 ‘완전참여와 평등권 확보’이다. 장애인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재활분야에서 실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에서 특수교육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훈련(training)’이라는 용어는 가끔 사용한다(Krokan, 2004).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장애청소년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련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즉 모든 장애인은 일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정상화와 통합이 잘 실현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에는 「장애청소년협회(Norwegian Association of the Disabled Youth)」가 조직되어 있다. 노르웨이 장애청소년협회는 노르웨이의 장애인협회 산하의 10개 독립기관 중 하나이며 장애청소년의 평등권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권익 옹호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대상은 신체장애인이며 신체 및 사회적 소외는 차별과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국제 원조와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한 저항은 물론 사회적 혁신적 사고와 관련된 사회발전이며 이것은 이 단체의 오랜 활동목표였다. 또 노르웨이에서 장애인 단체는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발전 이전부터 설립되었으며, 지난 20세기에는 노르웨이의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이 사회의 정규 구성원으로 인정되도록 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III.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수련활동 참가경험에 대한 의견
3. 수련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
4.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

Ⅲ. 설문조사 결과분석

이 연구를 위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7월 여름방학 시작 직전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특수학교 중 지역과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학생 청소년이 364명(57.4%)이었고, 특수학교 교사가 117명(18.5%), 수련시설 종사자가 71명(11.2%), 그리고 장애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82명(12.9%) 등 모두 634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63.2%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85.7%로 가장 많았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표Ⅲ-1>에서 <표Ⅲ-5>에 정리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634명을 몇 가지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남자가 56.9%이고, 여자는 43.1%로 나타났다. 연령은 15세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묻는 질문에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2%이었고, 그 다음으로 ‘대체로 못사는 편’과 ‘대체로 잘사는 편’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3명중 2명 정도인 62.4%가 중학교에 재학중이고 29.9%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45.9%, 대도시가 39.8%, 그리고 농·어촌지역이 11.3%로 조사되었다.

<표Ⅲ-1> 청소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비 율(%)
성 별	여자	43.1
	남자	56.9
연 령	14세 이하	16.8
	15-24세	83.2
경제수준	매우 못사는 편	4.9
	대체로 못사는 편	15.9
	보통 수준	63.2
	대체로 잘사는 편	11.3
	매우 잘사는 편	4.7
학 력	초등학교 재학	3.0
	중학교 재학	62.4
	고등학교 재학	29.9
	고등학교 졸	4.1
	대학교 졸업이상	0.5
거주지역	대도시	39.8
	중소도시	45.9
	농·어촌지역	11.3
	기타	3.0

*N=364

특수교사의 경우 여자가 59.8%를 차지하였고 남자는 47명으로 40.2%를 차지하여,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들의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25세~34세’와 ‘35세~44세’가 각각 39.3%였다. 그 다음은 ‘45세~54세’가 16.2%로 나타났다. 경제수준과 학력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보통 수준’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Ⅲ-2> 특수교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비 율(%)
성 별	여자	59.8
	남자	40.2
연 령	15-24세	3.4
	25-34세	39.3
	35-44세	39.3
	45-54세	16.2
	55세 이상	1.7
경제수준	매우 못사는 편	0.0
	대체로 못사는 편	7.7
	보통 수준	82.1
	대체로 잘사는 편	10.3
	매우 잘사는 편	0.0
학 력	고등학교 졸	1.7
	대학교 졸업이상	94.0
	기타	4.3
거주지역	대도시	41.9
	중소도시	54.7
	농·어촌지역	3.4

*N=117

<표Ⅲ-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에 응한 수련시설 종사자는 여자가 59.2%, 남자가 40.8%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 정도는 ‘25세~34세’이었고, 24세 이하와 ‘35세~44세’가 각각 14.1%와 12.7%이었다. 특수교사들이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과 학력은 대부분의 수련시설 종사자들도 ‘보통 수준’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반수이상의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대도시에 거주한다(54.9%)고 응답하였다.

<표Ⅲ-3> 수련시설 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비 율(%)
성 별	여자	59.2
	남자	40.8
연 령	15-24세	14.1
	25-34세	67.6
	35-44세	12.7
	45-54세	5.6
경제수준	매우 못사는 편	0.0
	대체로 못사는 편	12.7
	보통 수준	81.7
	대체로 잘사는 편	5.6
	매우 잘사는 편	0.0
학 력	고등학교 졸	1.4
	대학교 졸업이상	93.0
	기타	5.6
거주지역	대도시	54.9
	중소도시	28.2
	농·어촌지역	16.9

*N=71

장애청소년의 학부모 8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84.1%가 여성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35세~44세’가 56.1% ‘45세~54세’가 3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12.2%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48.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 이상’(40.2%)이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중소도시’(48.8%)와 ‘대도시’(43.9%)가 다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전체 63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은 57.4%이었다. 특수교사는 18.5%, 수련시설 종사자가 11.2%, 학부모는 12.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4> 학부모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비 율(%)
성 별	여자	84.1
	남자	15.9
연 령	25-34세	2.4
	35-44세	56.1
	45-54세	39.0
	55세 이상	2.4
경제수준	매우 못사는 편	4.9
	대체로 못사는 편	7.3
	보통 수준	61.7
	대체로 잘사는 편	4.9
	매우 잘사는 편	1.2
학 력	중학교졸	8.5
	고등학교 졸	48.8
	대학교 졸업이상	40.2
	기타	2.4
거주지역	대도시	43.9
	중소도시	48.8
	농·어촌지역	7.3

*N=82

<표Ⅲ-5> 전체 응답자 구성비

구 분	비 율(%)
청소년	57.4
특수교사	18.5
수련시설 종사자	11.2
학부모	12.9
전 체	100.0

*N=634

2. 수련활동 참가경험에 대한 의견

이 절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련활동 참가 횟수, 수련활동의 장소, 수련활동의 형식,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 점, 수련활동 시 불만스러웠던 점, 수련활동 참가비 부담방법, 그리고 참가한 수련활동 영역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을 설계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Ⅲ-6> 수련활동 참가여부 및 불참이유

구 분		비율(%)
수련활동 참가유무 (N=364)	참가경험 있다	76.6
	참가경험 없다	23.4
	전 체	100.0
수련활동 참가하지 않은 이유 (N=85)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다	29.4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	16.5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9.4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4.7
	참가방법을 몰랐다	16.5
	기 타	3.5
	전 체	100.0

먼저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있냐는 문항(<표Ⅲ-6>)에 대해 조사대상 청소년 364명 가운데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6.6%이었고, 수련활동에 한 번도 참가해보지 못한 청소년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전체 청소년들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하겠다.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없는 데 대한 이유로 29.4%는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24.7%는 수련활동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 부족과 참가방법을 몰랐다는 반응이 각각 1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의 설계 시 정보제공, 자원봉사자 활용, 그리고 홍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수련활동에 참가한 횟수를 알아보았다(<표III-7>). 그 결과 ‘1~2회’ 참가해 본 청소년이 72%이었고, ‘3~4회’는 13.3%, ‘5~6회’는 2.9%, ‘7회 이상’은 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수련활동 참가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6.5%로 조사되었다.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참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표III-7> 최근 1년간 수련활동 참가회수

구 분	비 율(%)
1-2회	72.0
3-4회	13.3
5-6회	2.9
7회 이상	5.4
없 음	6.5
전 체	100.0

*N=279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참가하였던 수련활동 장소를 모두 선택하라는 질문에 ‘자연권 수련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

(〈표Ⅲ-8〉)가 2명 가운데 1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의 예로는 교회 수련회 등 종교기관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표Ⅲ-8〉 수련활동이 이루어진 장소

구 분	비 율(%)
생활권 수련시설	23.8
자연권 수련시설	46.7
청소년 특화시설	6.5
유스호스텔	2.7
청소년 단체	13.1
기 타	7.1
전 체	100.0

*N=336

참가한 수련활동의 주된 형식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만 선택하라는 물음에 대해(〈표Ⅲ-9〉) ‘야외활동’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26.9%로 가장 많았고,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연극, 장기자랑, 가장행렬, 애니메이션 활동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각각 21.0%와 20.1%로 조사되었다. 반면 장애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 익히기’활동의 경우에는 2.9%만이 수련활동의 주된 형식이라는 반응을 보여서 아직 수련시설에서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II-9> 수련활동의 주된 형식

구 분	비 율(%)
명사 또는 선생님 강의	3.7
토론토의	3.1
야외활동	26.9
실내 활동	12.0
소그룹 활동	8.8
기능 익히기	2.9
특성화프로그램	20.1
레크리에이션	21.0
기 타	1.6
전 체	100

*N=834

다음으로는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 점을 15개 항목을 통해 분석하였다(표III-10>, <표III-11>, <표III-12>).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하여 수련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59.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3.6%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가했던 수련활동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해서도 53.4%가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련활동 시간의 적절성은 ‘그렇지 않다’가 45.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40.9%가 불만족, 34.8%가 보통, 그리고 24.4%는 만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련활동 지도자가 장애인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22.9%로 조사되었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은 44.1%로 약 2배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수련활동 선택의 자발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활동 시간의 적절성, 편의시설의 만족도,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성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이 이들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진행되기 보다는 시설 중심의 운영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

<표Ⅲ-10>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점(I)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 척도 평균
나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수련활동에 참가하였다	5.0	8.6	26.9	40.9	18.6	3.59
내가 참여했던 수련활동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다	3.6	11.8	31.2	38.0	15.4	3.50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의 시간은 적당하였다	2.2	9.3	32.6	45.2	10.8	3.53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6.1	18.3	34.8	26.9	14.0	3.24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장애인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6.8	16.1	33.0	31.9	12.2	3.27

*N=279

한편 참가했던 수련활동이 독창적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44.8%와 36.6%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평상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46.2%)이 많았다. 이와는 달리 예전보다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항목과 학교나 일생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항목에 있

어서는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 반응이 3배에서 4배 정도로 많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III-11>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점(II)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 척도 평균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독창적 이라고 생각한다	5.0	15.4	44.8	26.5	8.2	3.18
현재 우리나라 장애청소년의 수련 활동에 만족한다	7.9	22.2	36.6	23.3	10.0	3.05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7.2	14.3	32.3	31.5	14.7	3.32
예전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2.5	9.7	35.1	30.1	22.6	3.61
학교나 그 밖의 일상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겼다	2.9	11.8	39.8	30.8	14.7	3.43

*N=279

그리고 ‘장애로 인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항목에 대해 41.2%가 ‘그저 그렇다’, 26.2%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15.1%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련활동에의 참여가 편안한 휴식을 주는 기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 반응이 각각 24%와 17.9%인 반면 부정적 반응은 각각 35.8%와 3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련활동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57.7%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상당수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

에 참가한 후 이러한 활동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2>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점(Ⅲ)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 척도 평균
장애로 인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2.9	14.7	41.2	26.2	15.1	3.35
편안한 휴식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4.3	13.3	26.5	34.8	21.1	3.55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5.0	19.0	40.1	22.2	13.6	3.20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3.6	14.3	42.3	27.6	12.2	3.30
수련활동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2.2	7.5	32.6	36.2	21.5	3.67

*N=279

수련활동에 참가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표Ⅲ-13>) 조사대상 청소년 가운데 34.4%는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단위프로그램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도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표III-13> 수련활동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

구 분	비 율(%)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17.6
수련활동 지도자의 전문성	9.7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34.4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13.3
단위프로그램의 소요시간	16.1
기 타	9.0
전 체	100.0

*N=279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누가 이를 부담했는지를 확인한 결과(<표III-14>), 54.1%의 응답자들이 ‘본인 또는 부모님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학교나 기타 시설에서 자체 부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본인과 학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 많았다. 따라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III-14> 수련활동 참가비 부담방법

구 분	비 율(%)
본인 또는 부모님 부담	54.1
학교부담	16.5
지역사회단체나 기관에서 부담	9.7
수련활동 실시기관에서 부담	12.9
기 타	6.8
전 체	100.0

*N=279

<표Ⅲ-15>에서는 이 조사를 위해 수련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이러한 활동 영역 가운데 참가해 본 영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본 영역은 사진촬영, 민속답사, 민속공예 등의 문화감성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모험탐사활동, 환경의식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직업준비활동, 기타 순이었다. 수련활동의 영역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예시를 제시하였으나 수련활동 영역이란 용어 자체 생소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표Ⅲ-15> 참가해 본 수련활동 영역

구 분	비 율(%)
문화감성활동	22.4
봉사협력활동	10.1
직업준비활동	8.6
모험탐사활동	19.7
과학정보활동	14.0
국제교류활동	3.9
환경의식활동	15.8
기 타	5.5
전 체	100.0

*N=456

3. 수련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

앞으로 수련활동에 대한 장애청소년들의 욕구를 참가하고 싶은 활동영역, 수련활동에서 기대되는 점,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의 참가여부, 그리고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장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

과(<표Ⅲ-16>)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는 수련활동 영역은 모험탐사활동(19.5%), 직업준비활동(17.2%), 문화감성활동(16.8%), 과학정보활동(14.6%), 국제교류활동(12.7%), 환경의식활동(10.0%),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장애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는 수련활동 영역은 모험탐사활동, 직업준비활동, 문화감성활동, 과학정보활동, 국제교류활동, 환경의식활동,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는 수련활동 영역은 문화감성활동, 직업준비활동, 모험탐사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국제교류활동, 환경의식활동, 기타 순이었다. 이는 수련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감성활동, 직업준비활동, 모험탐사 활동 참가에 대한 장애청소년들의 욕구가 공통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Ⅲ-16> 참가하고 싶은 활동영역

단위: %

구 분	수련활동 참가경험		전 체
	있다	없다	
문화감성활동 (N=183)	15.9	19.6	16.8
봉사협력활동 (N=89)	7.3	11.0	8.2
직업준비활동 (N=187)	16.5	19.2	17.2
모험탐사활동 (N=213)	20.4	16.5	19.5
과학정보활동 (N=159)	14.5	14.5	14.6
국제교류활동 (N=138)	13.7	9.4	12.7
환경의식활동 (N=109)	10.4	8.6	10.0
기 타 (N=12)	1.2	1.2	1.1
전 체 (N=1,090)	100.0 (N=835)	100.0 (N=255)	100.0 (N=1,090)

수련활동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3가지를 선택하라고 질문한 결과는 <표Ⅲ-17>에 제시되어 있다.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서 기대하는 것은 즐거운 생활, 여러 친구 사귀기,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 등이었으며, 수련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서 기대하는 것은 즐거운 생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 여러 친구 사귀기,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자신감 갖기 등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경험 유무를 떠나 전체적으로 ‘즐거운 생활’(20.3%), ‘여러 친구 사귀기’(15.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14.4%), ‘스트레스 해소’(13.9%) 등의 순으로 유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7> 수련활동에서 기대되는 점

단위: %

구 분	수련활동 참가경험		전 체
	있다	없다	
스트레스 해소 (N=152)	13.9	14.1	13.9
즐거운 생활 (N=221)	20.2	20.4	20.3
일상생활의 자신감 갖기 (N=135)	11.8	14.1	12.4
여러 친구들 사귀기 (N=169)	15.4	15.7	15.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 (N=157)	13.5	17.3	14.4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배우 (N=99)	8.9	9.8	9.1
뚜렷한 삶의 목표 설정 (N=46)	5.0	1.6	4.2
편안한 휴식의 기회 (N=103)	10.3	6.7	9.4
기 타 (N=9)	1.0	0.4	0.8
전 체 (N=1,091)	100.0 (N=835)	100.0 (N=255)	100.0 (N=1,091)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표III-18>)에서 51.4%가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하였고, ‘꼭 참가 하겠다’가 41.8%, ‘참가하지 않겠다’가 6.9%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 여부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었는데, 참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그때 생각해 보겠다(62.4%)’와 ‘참가하지 않겠다(11.8%)’는 의견이 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보다 많았다.

한편 향후에도 수련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이유로는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가 48%,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와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가 각각 20%와 16%로 나타났다.

<표III-18> 장애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참가희망 여부

단위: %

구 분		수련활동 참가경험		전 체
		있다	없다	
프로그램 참가희망 여부	꼭 참가하겠다 (N=152)	46.6	25.9	41.8
	그때 생각해 보겠다 (N=187)	48.0	62.4	51.4
	참가하지 않겠다 (N=25)	5.4	11.8	6.9
	전 체 (N=364)	100.0 (N=279)	100.0 (N=85)	100.0 (N=364)

앞으로 수련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싶은가에 대해(<표III-19>) 조사대상 청소년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연권 수련시설(37.6%)’이 가장 많았고,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특화시설’이 각각 19.0%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참가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수련활동 참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연권 수련시설’에 이어 ‘생활권 수련시설(24.7%)’을

희망한 반면 수련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18.3%)’을 희망하였다.

<표Ⅲ-19>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장소

단위: %

구 분	수련활동 참가여부		전체
	있다	없다	
생활권 수련시설 (N=69)	17.2	24.7	19.0
자연권 수련시설 (N=137)	39.1	32.9	37.6
청소년 특화시설 (N=69)	18.3	21.2	19.0
유스호스텔 (N=29)	7.9	8.2	8.0
청소년단체 (N=51)	14.7	11.8	14.0
기 타 (N=9)	0.9	1.2	2.5
전 체 (N=364)	100.0 (N=279)	100.0 (N=85)	100.0 (N=364)

4.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활성화에 관련하여 청소년,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의 필요성, 수련활동의 장애요인, 수련프로그램의 중요 요인, 원하는 프로그램 형태,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수련활동이 필요하느냐는 질문(<표Ⅲ-20>)에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46.4%,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9.0%로 나타나 대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

지만 수련활동의 필요성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수교사와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이 가장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이 학부모와 청소년 순이었다. 즉 전문가 집단이 더 수련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0>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의 필요성 여부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 체
매우 필요하다 (N=294)	36.8	65.0	64.8	46.3	46.4
어느 정도 필요하다 (N=247)	41.2	29.9	33.8	46.3	39.0
그저 그렇다 (N=71)	16.5	5.1	1.4	4.9	11.2
필요하지 않다 (N=15)	3.8	0.0	0.0	1.2	2.4
전혀 필요하지 않다 (N=7)	1.6	0.0	0.0	1.2	1.1
전 체 (N=634)	100.0 (N=364)	100.0 (N=117)	100.0 (N=71)	100.0 (N=82)	100.0 (N=634)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3가지 선택하라는 문항에 대해(<표Ⅲ-21>)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족’(19.7%), ‘편의시설 부족’(17.8%), ‘참가기회 부족’(16.7%),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집단별 의견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여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은 가장 크게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참가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참가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른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바뀌는 환경이 두렵다’, ‘시설 종사자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장애인 화장실이 부족하다’, ‘수련시설이 적극적 수용자세의 부족으로 장소섭외가 어렵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표Ⅲ-21> 수련활동 장애요인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 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체
수련시설의 홍보부족 (N=236)	14.9	8.8	10.8	8.1	12.5
참가자의 필요성 및 인식부족 (N=238)	14.6	15.4	15.5	15.4	14.9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 (N=314)	16.4	19.4	14.6	15.0	16.6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N=376)	18.9	21.7	18.3	22.8	19.7
편의시설 부족 (N=338)	17.6	17.9	18.3	18.3	17.8
참가기회 부족 (N=317)	15.6	15.7	21.1	19.5	16.7
기 타 (N=30)	1.9	1.1	1.4	0.8	1.6
전 체 (N=1,894)	100.0 (N=1084)	100.0 (N=351)	100.0 (N=213)	100.0 (N=246)	100.0 (N=1,894)

그리고 수련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표Ⅲ-22>)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 프로그램’(23.4%), ‘대인관계 및 사회응용기술’(22.6%), ‘체육 스포츠활동’(15.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집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다고 본 반면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응용을 위한 기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스트레스 해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로는 장애 영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Ⅲ-22>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중요 요인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 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체
장애인과의 통합 프로그램 (N=445)	21.2	25.6	28.2	26.0	23.4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기술 (N=430)	17.9	30.5	28.6	27.2	22.6
음악·미술활동 (N=107)	6.8	5.1	1.9	4.5	5.6
체육·스포츠활동 (N=292)	16.9	13.7	11.7	14.2	15.4
진로·직업지도 (N=171)	9.8	6.8	8.0	9.3	9.0
스트레스 해소 (N=242)	12.4	12.5	15.0	12.6	12.7
연극, 영상, 애니메이션 창작활동 (N=199)	14.0	5.1	6.1	6.1	10.5
기 타 (N=15)	1.1	0.6	0.5	0.0	0.8
전 체 (N=1,901)	100.0 (N=1,091)	100.0 (N=351)	100.0 (N=213)	100.0 (N=246)	100.0 (N=1,901)

수련활동에 포함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표Ⅲ-23>) 조사대상 네 집단 모두 ‘야외활동’(24.4%)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순이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보다는 특수교사와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이 ‘소그룹 활동’을 좀 더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강의나 토론 방식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반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반청소년과 동일한 영역으로 하되 프로그램으로 특성화시켜 운영하는 방식을 원하였으며,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여 재활동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Ⅲ-23> 원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형태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 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체
명사 또는 선생님의 강의 (N=79)	5.7	2.3	1.9	2.0	4.2
토론, 토의 (N=96)	5.0	4.8	5.2	5.3	5.0
야외활동 (N=463)	24.3	25.4	24.9	22.8	24.4
실내활동 (N=142)	9.3	3.7	3.8	7.7	7.5
소그룹활동 (N=241)	10.7	16.0	16.4	13.4	12.7
기능 익히기 (N=171)	8.3	10.0	9.4	10.2	9.0
특성화프로그램 (N=372)	19.2	19.9	24.4	16.7	19.6
레크리에이션 (N=321)	16.4	17.4	13.1	21.5	16.9
기 타 (N=16)	1.0	0.6	0.9	0.4	0.8
전 체 (N=1,934)	100.0 (N=1,091)	100.0 (N=351)	100.0 (N=213)	100.0 (N=246)	100.0 (N=1,934)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Ⅲ-2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24.1%), ‘수련활동 지도자의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성 확보’(14.4%),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12.8%) 등의 순으로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21.3%), 수련 활동 참가비 지원(13.4%),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11.5%)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사 집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순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27.7%), 수련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16.0%),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 집단은 프로그램 개발(28.9%), 지도자의 전문성(17.5%), 그리고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확보’(12.2%) 순이었다.

네 집단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장애청소년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수련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시설확보’ 등이 있었다.

<표III-24>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 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N=459)	21.3	27.6	27.7	28.9	24.1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N=243)	13.4	14.2	8.5	11.8	12.8
수련활동의 균등한 참가 기회 확대 (N=193)	10.6	6.8	16.0	7.7	10.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N=131)	9.1	5.4	3.8	2.0	6.9
수련활동 지도자의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성 확보 (N=274)	11.5	17.4	10.7	17.5	14.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확보 (N=210)	11.1	13.1	6.1	12.2	11.0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접근성 확대 (N=193)	11.2	8.5	8.9	8.9	10.2
수련시설내의 장애인식시설 확충 (N=187)	10.9	6.8	8.0	11.0	9.8
기 타 (N=11)	0.9	0.0	0.5	0.0	0.6
전 체 (N=1,901)	100.0 (N=1,091)	100.0 (N=351)	100.0 (N=213)	100.0 (N=246)	100.0 (N=1,901)

수련활동의 적정 시기와 관련하여(<표Ⅲ-25>) 조사대상 전체 집단은 ‘여름방학’(50.8%)과 ‘주중’(26.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여름방학’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집단별로 살펴볼 때에도 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여름방학’과 ‘주중’의 순이었다.

정리해 보면 학기 중에는 주말보다는 주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방학 중에는 겨울방학보다는 여름방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타로는 ‘여름·겨울 방학 둘 다’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표Ⅲ-25>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적정 시기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 체
주 중 (N=165)	22.3	36.8	23.9	29.3	26.0
주 말 (N=48)	7.4	6.0	12.7	6.1	7.6
여름방학 (N=322)	54.7	46.2	46.5	43.9	50.8
겨울방학 (N=51)	10.4	0.9	7.0	8.5	8.0
기 타 (N=48)	5.2	10.3	9.9	12.2	7.6
전 체 (N=634)	100.0 (N=364)	100.0 (N=117)	100.0 (N=71)	100.0 (N=82)	100.0 (N=634)

한편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당한지에 대해(<표Ⅲ-26>) 전체 응답자들의 반응은 ‘3시간~4시간’(38.5%), ‘1시간~2시간’(35.0%), ‘5시간 이상’(1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집단과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1시

간~2시간’을 가장 선호한 반면 특수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은 ‘3시간~4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접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단시간의 활동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Ⅲ-26>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의 적정시간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 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 체
1시간 미만 (N=47)	9.3	4.3	8.5	2.4	7.4
1시간~2시간 (N=222)	37.6	22.2	46.5	31.7	35.0
3시간~4시간 (N=244)	33.8	48.7	39.4	43.9	38.5
5시간 이상 (N=100)	16.2	21.4	4.2	15.9	15.8
기 타 (N=21)	3.0	3.4	1.4	6.1	3.3
전 체 (N=48)	100.0 (N=364)	100.0 (N=117)	100.0 (N=71)	100.0 (N=82)	100.0 (N=634)

이와 함께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의 경우에 적당한 기간에 대한 물음에(<표Ⅲ-27>)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2박3일’(54.4%), ‘1박2일’(21.1%), ‘3박4일’(15.6%) 순으로 응답하였다. 네 집단 모두 거의 유사한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다만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1박2일’보다는 ‘3박4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7> 숙박형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적정한 기간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체
1박 2일 (N=134)	19.8	29.9	12.7	22.0	21.1
2박 3일 (N=345)	48.1	56.4	71.8	64.6	54.4
3박 4일 (N=99)	18.7	9.4	14.1	12.2	15.6
4박 5일 (N=51)	12.6	2.6	1.4	1.2	8.0
기 타 (N=5)	0.8	1.7	0.0	0.0	0.8
전 체 (N=634)	100.0 (N=364)	100.0 (N=117)	100.0 (N=71)	100.0 (N=82)	100.0 (N=634)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가장 적당한 인원규모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표Ⅲ-28>) 전체 응답자의 경우 ‘15~30명 사이’라는 응답(29.5%)이 가장 많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집단은 ‘30명~50명 사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특수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15명~30명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은 가장 작은 규모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5명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Ⅲ-28>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적정 인원

단위: %

구 분	청소년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학부모	전체
15명 이하 (N=141)	21.4	17.9	32.4	23.2	22.2
15-30명 사이 (N=187)	25.8	31.6	31.0	41.5	29.5
30-50명 사이 (N=174)	26.4	30.8	25.4	29.3	27.4
50-100명 사이 (N=88)	16.2	15.4	8.5	6.1	13.9
100명 이상 (N=44)	10.2	4.3	2.8	0.0	6.9
전 체 (N=634)	100.0 (N=364)	100.0 (N=117)	100.0 (N=71)	100.0 (N=82)	100.0 (N=634)

IV.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현황과 발전방안

IV

1.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현황
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문제점
3.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발전방안

IV.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현황과 발전방안

1.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현황

1) 문화관광부의 장애청소년 지원현황

문화관광부는 경제적 혹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문화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청소년활동 및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에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나 ‘장애인 박물관 교실’과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공연장 객석 기부제’와 같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의 문화관광부 장애인 지원사업은 ‘점자도서관 설립지원’이나 문화시설의 자동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같은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 문화관광부 청소년관련 예산편성 현황

2004년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관련 예산은 총 101,547백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국고가 23,728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이 47,571백만 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30,248백만 원이다.

총 30,248백만 원의 청소년관련 예산 중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에 2,447백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이 중 192백만 원이 소외계층 청소년 연극

공연 지원에 할당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비 183백만원 중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제20회 아구노리(AGOONOREE)에 2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아구노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AGOON 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야영대회를 개최한 데서 유래하였다. AGOON(전진)이라는 희랍어와 JAMBOREE의 OREE를 붙여 AGOONOREE가 되었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장애인 스카우트 야영대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또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청소년을 위한 사랑나눔 캠프에 40백만 원(한국예술치료학회), 제8회 곰두리 예술제에 15백만 원(한국걸스카우트연맹), 장애·비장애 청소년 사회성 향상을 위한 문화학교 사업에 30백만 원(청소년과 사랑사랑), 그리고 시각장애우 청소년과 함께 사랑나누기 사업에 18백만 원(한국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년도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각종 지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문화관광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

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 27개 교실('04)
- 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확대 : 46개 대회('04)
- 다. 특수학교 운동용품 지원 확대 : 25개교 3000점('04)
- 라.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학교 교사 특수체육 연수 등

②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문화프로그램 보급 확대

- 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 국악, 연극, 무용 등 찾아가는 공연
- 나 장애인 박물관교실 : 전시실 관람, 도자기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

- 다. 손으로 느끼는 민속교실 : 시각장애인에게 촉각을 통한 박물관 전시작품 감상
- 라. 장애청소년참여프로그램 :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 마. 장애청소년 국악문화강좌,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 등

③ 문화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 가. 도서관, 박물관 등 근린생활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자동문, 점자유도 블록,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지원
-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제작 및 기기 구입, 녹음자료 제작 등

④ 문화관광부 공연장 객석 5% 기부제 실시

- 가.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공연장의 자체 공연시 객석 5%를 장애인 등에 제공 : '04년 5월부터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예술극장) 등 4개 기관 실시

(3) 문화관광부의 문화소외계층 지원계획

문화관광부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3~2004년도에는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문화소외계층 지원 TF'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문화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지원방안 중 즉각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① '문화소외계층 지원방안' 주요내용

- 가. 문화환경 및 자원, 시설에의 접근성 확대
 - a. 「모셔오는 문화활동(가칭)」추진

- b.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c. 관광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d. 장애인의 국어 접근 편의성 확대
- e.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 f. 장애인등 소외계층 문화접근권 신장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a.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b. 장애인체육시설 조성 확대 및 장애인시설의 체육공간 확충 등
- c.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활성화
- d. 체육교실사업 확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e.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 소외계층 할인제도 확대

- a.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카드/바우처 제도 도입(관광공사 연계)
- b. 티켓기부제도 도입
- c.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시행범위 확대
- d. 공연당일 남은 표를 소외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e. 할인제도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참여기업(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라. 문화창작·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 a. 소속기관, 산하단체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면 실시
- b. 자기표현예술워크숍 활성화
- c. 문화예술교육기관 소외계층 무상교육 쿠폰제 도입
- d.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정책(프로그램) 마련

마. 문화체험 지원 도우미 지원체제 도입

- a. 레저버디(leisure buddy) 활성화
- b.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체험을 도와줄 도우미제도

(4) 특수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2005년도 신규추진사업)

문화관광부가 2005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 및 소외계층 대상자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소외계층 문화권신장 연구사업
- ② 소외계층대상 문화센터 운영지원
- ③ 특수소외계층 문화바우처제 시범실시
- ④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보급
- ⑤ 아시아열린문화축제 개최 등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05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청소년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의료비 지원, 학비지원, 취업지원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 문화관광부의 지원정책 방향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은 지금까지 주로 보호,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는 소극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도 문화적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온 문화소외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이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분야가 연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할인제도 도입, 장애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아니라 일반청소년과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적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소외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의 자활 노력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립 수련시설의 장애청소년 사업(소외청소년캠프)

소외청소년 수련활동은 장애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국립시설로서의 공립적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여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험 증대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적인 여건상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 수련활동이다. 소외청소년을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장애, 학교부적응, 탈북청소년 등의 대상으로 각 특성에 맞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애청소년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소외청소년캠프 실적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2002년에 8회에 걸쳐 2,678명(34.2%)으로 장애청소년과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12회에 걸쳐 5,658명(56.8%)으로 특수학교와 장애가족, 관련단체의 수련활동이 있

었다. 2004년은 11회 8,337명(91%)의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부적응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수련활동이 있었으며 식비나 숙박비 등 일부 비용이 지원된 사업도 있다.

(2)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소외청소년캠프 실적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2002년은 6회에 걸쳐 2,400명(66.1%)으로 장애청소년과 장애관련단체의 수련활동이 있었고 2003년에는 5회에 걸쳐 4,200명(100%)으로 소외청소년사업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으로만 실시되었다. 그리고 올해 2004년은 3회 2,471명(33.2%)의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부적응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수련활동이 있었다.

<표IV-1> 국립시설 소외캠프 사업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사업실적 시설별	년도	회수(회)		연인원(명)		소외청소년 사업중 장애청소년 비율(%)
		소외 청소년	장애 청소년	소외 청소년	장애 청소년	
중앙청소년수련원	2002	29	8	7821	2678	34.2
	2003	32	12	9953	5658	56.8
	2004	18	11	9068	8337	91.0
평창청소년수련원	2002	6	4	3632	2400	66.1
	2003	5	5	4200	4200	100.0
	2004	7	3	7440	2471	33.2

*출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4),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2004)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은 극히 드물다. 국립시설인 중앙청소년수련원과 평창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소외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경기도 청소년수련원(도립)등 공공수련시설에서도 미비하나마 장애청소년 대상 수련활동이 조금씩 실시되고는 있다.

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문제점

1) 청소년 수련시설의 인프라 문제

청소년수련시설은 규정상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혹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은 국립 수련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권 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및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설립주체가 국립이므로 그나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기타 수련시설의 편의시설은 대부분 매우 부족하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기도 하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애청소년 전문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련시설은 대부분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미흡하다.

나아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른 한 가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려면 많은 보조지도자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실적 위주의 기관운동을 추구하다 보면 투입예산 대비 참가인원 실적 비율이 낮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이해당사자의 인식 문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즉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과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비장애청소년과 주민들의 인식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장애가 없는 일반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생활권 수련시설에 장애청소년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지도자들이 기초적인 수화나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도 또한 커다란 문제다. 일반적으로 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라 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에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지도자가 장애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인격체이며 그들에게도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외하고는 기타 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아직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다만 일부 공공시설과 민간 시설 및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일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시설부족 문제

각종 청소년시설 중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시설 정도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지도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갖춘 시설이 부족하다. 나아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지 못하여 매우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발전방안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사람 이상간의 말이나 몸짓, 장난감, 기타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사회적 시도와 반응의 상보적 행동이라고 한다(정계숙 외, 1998). 청소년기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이유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술은 발달 후기의 바람직한 교우관계와 원만한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또한 상호 교환적인 언어를 획득하고 연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Guralnick, 1981).

청소년들은 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언어를 공유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에 반응할 때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된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일반 아동들로부터 분리된 환경에서보다 통합된 환경에서 더 많은 사회적 자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uralnick, 1990).

교육에서 말하는 통합이란 일반청소년들이 교육받는 전형적인 환경에서 장애청소년들이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청소년들과 어울리는 환경 속에서 장애청소년들은 더 많은 관찰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의사소통이나 놀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 수행능력은 분리된 배치상황에서 보다 통합된 환경에서 더 많이 향상된다(Guralnick, Conner, Hammond, Gottman, & Kinnish, 1995; Guralnick, 1990).

장애청소년의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와 장애청소년들과 비장애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체험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상보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개별화되고 기능적인 교수활동이 아닌 체험중심의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애청소년들에게 있어 수련활동의 커다란 의미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실태에서의 일반 수련시설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이 지금까지의 체험중심활동에서 현재의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 능력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수련활동의 역할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이러한 역할과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청소년의 정적행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을 유도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 체제를 활용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정적행동지원을 통한 장애의 완화

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이란 장애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혐오적 행동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즉 장애청소년이 행동문제로 인하여 비장애청소년과 통합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장애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적 자원을 통한 정적 지원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애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은 장애청소년은 물론 일반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며 환경에서의 결함과 관련된 장애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정의된다.

수련활동 입소 시 비장애청소년과 장애청소년들이 복수 학단으로 입소했을 경우 장애청소년의 일반청소년과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상황

을 구조화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수련원 측의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체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장애청소년 입소 시 장애전담 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각 장애영역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애의 원인과 문제행동기능을 구체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청소년 지도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장애 영역별 특성 및 대처전략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환경적 결함을 구조화하고, 일회성의 수련활동을 벗어나 장애 특성별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전문화된 장애 영역별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현장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장애청소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련활동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절한 환경구조화로 바꾸어 줌으로서 체계적인 환경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고, 적절한 수련활동의 중재 프로그램이 장애청소년의 정적 행동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장애 관련 각 영역별 전문 지도자 및 상담 교사를 통하여 수련지도자는 미리 장애청소년의 개별 특성 및 관련 세부사항을 이해하고, 이러한 팀 협력을 통하여 더욱 원활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청소년의 행동지원을 위한 팀 접근(team approach)은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과 통합 활동을 할 때 필요하다. 장애특성별 행동과 수련시설 내의 환경사이의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중재와 대체행동을 목표로 환경결함을 보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된 수련활동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련시설 내에서의 노력은 극도의 개인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장애청소년들에게도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PBS)을 통해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수련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Safran & Oswald, 2003).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장애 영역별 특성에 따른 원인분석과 중재,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연구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중심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

이 연구에서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 교사, 학부모, 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청소년 중 수련활동 참가경험이 있는 경우가 76.4%이고, 참가경험이 없는 경우가 23.4%로 나타났다. 미경험자의 경우 수련활동 시 활동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조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인 체험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연간 1~2회 가량의 수련활동 기회조차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무상의 수련활동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교육의 일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몫이라고 본다.

장애청소년들에게 부여되는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사회성 증진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한시적 체험활동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장애인협회 및 특수교육 요구학생 가족상담회 등의 조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장애청소년들을 장애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정에서 또래 교사(peer tutor)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상보적 교수(reciprocal teaching) 프로그램의 접근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사회내의 장애청소년 부모회와 같은 조직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수련활동 기회 확대 및 수련활동 시 필요한 인력 수급, 정확한 임상적 관찰자로서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 수련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모의 참여와 부모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수련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통합은 장애인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미래를 준비시키며,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한다. 장애청소년을 분리시키면 분리시킬수록 장애인의 세계 속에 스스로 안주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고 특수화와 고립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분리의 결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시키고, 비장애인은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의 결여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고정관념은 장애인의 통합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련활동 속에서의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과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 확대는 더욱 절실 할 것으로 요구된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기능적 활동 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목적은 완전한 사회 통합이며, 완전한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직업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의 접근을 통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성인으로서의 역할 기능, 가정 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련활동의 확대운영 방안으로 예를 들어 의사결정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전문연수, 특수아동 부모교육 연수, 행동중재 및 언어치료 전문 연수 등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전의 부정적이거나 중성적인 태도를 덜 갖게 된다고 한다.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봉사활동이 간접적 접촉의 봉사활동에 비하여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배, 2002).

따라서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시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영역 내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마련과 이를 위한 영속성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을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정적 지원이 가능한 지도자 양성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연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자원봉사활동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별로 학년별 학생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연간 7~20시간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은 초등학교는 연간 5~7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학생봉사활동 시수를 정리하였다(<표IV-2>). 이는 일반청소년 수련활동이 현재의 시점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인력 활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태도 변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표IV-2>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봉사활동 시간

학교급별	학 년	봉사활동 권장시간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초등학교	1-4	연간 7시간 이상	연간 5~7시간 이상
	5-6	연간 10시간 이상	
중학교	전학년	연간 18시간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전학년	연간 20시간 이상	

*출처 : 학생봉사활동지도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개선 요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이 기존의 체험중심 활동에서 현재의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장애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을 유도하는 기회를 확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 연구에서 주장한 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의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장애 편의시설의 구체적 기준강화 및 시설책임자들의 의식변화 또한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상의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소 의무기준을 연간 수련인원 중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놓음으로써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의 참가를 확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2)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

각급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장애 특성별 전문연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경진 대회 등을 통한 현장의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초청 수련활동의 경우 장애·비장애청소년들의 통합 수련을 확대·운영하여 일반청소년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하며, 더욱 긍정적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장애관련 교육 실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인을 대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소양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장애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종별 특성, 기초적 수화,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에 관한 것이면 된다.

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전문연수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청소년의 특성, 지도방법 등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은 모든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전문연수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편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공분야의 사업편성에 있어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예를 들면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의 약 10%)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할당제를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정책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장애청소년을 위해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때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정 부분을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청소년 수련시설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다. 특수교사는 수련시설 종사자로부터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수련시설 종사자들은 반대로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프로그램 운영예산 등을 함께 동원하는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 연계 협력관계가 수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 설립·운영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상설화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특별 기획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지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활권 및 자연권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특성화로 내세울 수 있는 상설화된 수련시설이 필요하다. 이 수련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설비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상설 시설은 장애청소년 전문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고 필요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혹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시설에 종사할 전문 지도자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 외에 다른 기관에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지도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원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정책적 견지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장애청소년 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특성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사이의 협력적 연계협력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장애학생 전문기관과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 전문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종합대책을 연구개발하고 수립하는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1) 요약

제한된 문헌자료와 참고서적, 그리고 정책자료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설문조사 실시에 있어 장애청소년의 특성상 응답자 반응을 끌어내는 데 대한 설문과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 많은 현실적 문제를 만날 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현황과 주요 내용, 정부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수련시설에서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등 실태를 파악하였다.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프

로그래밍 내용이나, 실시방법, 실시 기간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수련활동 지원방법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면에 대한 욕구도 파악하였다.

나아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모았다. 프로그램 구성방안과 실시기간, 효과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 방법,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선진국의 장애인 활동에 대한 자료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밖에 관련된 문제나 개선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①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청소년이 364명(57.4%)이었고, 특수학교 교사가 117명(18.5%), 수련시설 종사자가 71명(11.2%), 그리고 장애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82명(12.9%) 등 모두 634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63.2%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85.7%였다.

특수교사 응답자들은 여자가 59.8%로 더 많았다. 연령은 '25세~34세'와 '35세~44세'가 각각 46명(39.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16.2%인 '45세~54세'이었다.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경제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수련시설 종사자는 여자가 59.2%, 남자가 40.8%였는데 이들의 연령은 2명 가운데 1명 정도는 '25세~34세'이었고, 24세 이하와 '35세~44세'가 각각 14.1%와 12.7%이었다. 특수교사들이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과 학력은 대부분의 수련시설 종사자들도

‘보통 수준’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반수이상의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대도시에 거주(54.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학부모 8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84.1%가 여성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35세~44세’가 56.1% ‘45세~54세’가 39%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0% 이상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12.2%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48.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 이상’(40.2%)이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중소도시’(48.8%)와 ‘대도시’(43.9%)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련활동 참가경험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 청소년 364명 가운데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279명(76.6%)이었고, 한번도 참가해보지 못한 청소년은 85명(23.4%)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전체 청소년들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29.4%는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24.7%는 수련활동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 부족과 참가방법을 몰랐다는 반응이 각각 16.5%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수련활동에 참가한 횟수를 알아본 결과, ‘1~2회’ 참가했다는 청소년이 72%이었고, ‘3~4회’는 13.3%, ‘5~6회’는 2.9%, ‘7회 이상’ 참가해 본 청소년은 5.4%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수련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6.5%로 조사되었다. 자신들이 참가하였던 수련활동 장소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2명 가운데 1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참가한 수련활동의 형식은 ‘야외활동’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26.9%로 가장 많았고,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연극, 장기자랑, 가장행렬, 애니메이션 활동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각각 21.0%와 20.1%로 나타났다.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하여 수련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59.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3.6%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참가했던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해서도 53.4%가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련활동 시간의 적절성은 ‘그렇지 않다’가 45.2%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2.6%로 나타났다.

수련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40.9%가 불만족, 34.8%가 보통, 그리고 24.4%가 만족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수련활동 지도자가 장애인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22.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련활동에 참가하면서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 장애청소년 응답자 34.4%가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라 응답하여 수련시설의 물리적 환경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단위프로그램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불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가했던 수련활동이 독창적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44.8%와 36.6%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편만한 휴식을 주는 기회가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대상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 반응이 각각 24%와 17.9%인 반면 부정적 반응은 각각 35.8%와 3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련활동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57.7%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참가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54.1%의 응답자들이 ‘본인 또는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나 기타 시설에서 자체 부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가해 본 영역은 사진 촬영, 민속답사, 민속공예 등의 문화감성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모험탐사활동, 환경의식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직업준비활동, 기타 순이었다.

③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

장애청소년들이 앞으로 참가하기 원하는 수련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즉 모험탐사활동(19.5%), 직업준비활동(17.2%), 문화감성활동(16.8%), 과학정보활동(14.6%), 국제교류활동(12.7%), 환경의식활동(10.0%) 등의 순으로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즐거운 생활’(20.3%), ‘여러 친구 사귀기’(15.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14.4%), ‘스트레스 해소’(13.9%) 등의 순으로 유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51.4%가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하였고, ‘꼭 참가 하겠다’는 청소년이 41.8%, ‘참가하지 않겠다’는 청소년이 6.9%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 여부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었는데, 참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그때 생각해 보겠다(62.4%)’와 ‘참가하지 않겠다(11.8%)’는 의견이 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보다 많았다.

한편 향후에도 수련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한 25명 장애청소년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가 48%,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와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는 반응이 각각 20%와 16%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련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싶은가에 대해 조사대상 장애청소년 중 ‘자연권 수련시설(37.6%)’이 가장 많았고,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특화시설’이 똑 같이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수련활동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전체의 46.4%가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9.0%로 대부분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수련활동의 필요성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수교사와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이 가장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이 학부모와 청소년 순이었다.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족’(19.7%), ‘편의시설 부족’(17.8%), ‘참가기회 부족’(16.7%),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집단별 의견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여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 프로그램’(23.4%),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기술’(22.6%), ‘체육 스포츠활동’(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분석해 볼 때 청소년 집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다고 본 반면 특수교사, 수련시설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련활동에 포함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조사대상 네 집단 모두 ‘야외활동’(24.4%)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순이었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24.1%), ‘수련활동 지도자의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성 확보’(14.4%),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12.8%)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21.3%),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13.4%),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11.5%)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수교사 집단도 이와 유사한 순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27.7%), 수련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16.0%),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집단은 프로그램 개발(28.9%), 지도자의 전문성(17.5%), 그리고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확보’(12.2%) 순이었다.

조사대상 집단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애청소년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수련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시설확보’ 등이 있었다.

수련활동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전체 대상 집단은 ‘여름방학’(50.8%)과 ‘주중’(26.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여름방학’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위 프로그램의 실시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반응은 ‘3시간~4시간’(38.5%), ‘1시간~2시간’(35.0%), ‘5시간 이상’(15.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집단별 반응을 분석하면 청소년 집단과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1시간~2시간’을 가장 선호한 반면 특수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은 ‘3시간~4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접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단시간의 활동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의 경우에 적당한 기간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2박3일’(54.4%), ‘1박2일’(21.1%), ‘3박4일’(15.6%) 순으로 응답하였다. 네 집단 모두 거의 유사한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다만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1박2일’보다는 ‘3박4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가장 적당한 인원규모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경우 ‘15~30명 사이’라는 응답(29.5%)이 가장 많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집단은 ‘30명~50명 사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특수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15명~30명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은 가장 작은 규모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5명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장애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 27개 교실(‘04)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확대 : 46개 대회(‘04)
- 특수학교 운동용품 지원 확대 : 25개교 3000점(‘04)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학교 교사 특수체육 연수 등

②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문화프로그램 보급 확대

- 찾아가는 문화활동 : 국악, 연극, 무용 등 찾아가는 공연
- 장애인 박물관교실 : 전시실 관람, 도자기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
- 손으로 느끼는 민속교실 : 시각장애인에게 촉각을 통한 박물관 전시작품 감상

- 장애청소년참여프로그램 :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 장애청소년 국악문화강좌,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 등
 - ③ 문화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 도서관, 박물관 등 근린생활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자동문, 점자유도 블록,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지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제작 및 기기 구입, 녹음자료 제작 등
 - ④ 문화관광부 공연장 객석 5% 기부제 실시
-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공연장의 자체 공연시 객석 5%를 장애인 등에 제공 : '04년 5월부터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예술극장) 등 4개 기관 실시

(4) 문화소외계층 지원계획

- ① 문화환경 및 자원, 시설에의 접근성 확대
 - 「모셔오는 문화활동(가칭)」추진
 -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관광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인의 국어 접근 편의성 확대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 장애인등 소외계층 문화접근권 신장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 ②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장애인체육시설 조성 확대 및 장애인시설의 체육공간 확충 등
 -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활성화
 - 체육교실사업 확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소외계층 할인제도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카드/바우처 제도 도입(관광공사 연계)
- 티켓기부제도 도입
-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시행범위 확대
- 공연당일 남은 표를 소외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할인제도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참여기업(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④ 문화창작·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 소속기관, 산하단체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면 실시
- 자기표현예술워크숍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기관 소외계층 무상교육 쿼터제 도입
-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정책(프로그램) 마련

⑤ 문화체험 지원 도우미 지원체제 도입

- 레저버디(leisure buddy) 제도의 활성화
-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체험을 도와줄 도우미제도 마련

(5) 특수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2005년도 신규추진사업)

- ① 소외계층 문화권신장 연구사업
- ② 소외계층대상 문화센터 운영지원
- ③ 특수소외계층 문화바우처제 시범실시
- ④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보급
- ⑤ 아시아열린문화축제 개최 등

(6)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소외청소년 캠프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2002년에 8회에 걸쳐 2,678명(34.2%)으로 장애청소년과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12회에 걸쳐 5,658명(56.8%)으로 특수학교와 장애가족, 관련단체의 수련활동이 있었다. 2004년은 11회 8,337명

(91%)의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부적응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수련활동이 있었으며 식비나 숙박비 등 일부 비용이 지원된 사업도 있다.

(7)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소외청소년 캠프

소외청소년캠프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2002년은 6회에 걸쳐 2,400명(66.1%)으로 장애청소년과 장애인단체의 수련활동이 있었고 2003년에는 5회에 걸쳐 4,200명(100%)으로 소외청소년사업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으로만 실시되었다. 그리고 올해 2004년은 3회 2,471명(33.2%)의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부적응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수련활동이 있었다.

(8)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방안

이러한 역할과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청소년의 정적행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을 유도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체제를 활용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 연구에서 주장한 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의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체적 기준강화 및 시설책임자들의 의식변화 또한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상의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소 의무기준을 연간 수련인원 중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놓음으로써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의 참가를 확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②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

각급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장애 특성별 전문연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경진 대회 등을 통한 현장의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초청 수련활동의 경우 장애·비장애청소년들의 통합 수련을 확대·운영하여 일반청소년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하며, 더욱 긍정적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체계

①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체계의 문제점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인프라 문제

장애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및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설립주체가 국립이므로 그나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기타 수련시설의 편의시설은 대부분 매우 부족하다.

나.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문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

다. 즉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과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비장애청소년과 주민들의 인식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장애가 없는 일반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생활권 수련시설에 장애청소년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지도자들이 기초적인 수화나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라. 수련활동 기반시설 미비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시설을 제외하고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가 거의 없다. 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지도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갖춘 시설이 부족하다. 나아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지 못하여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②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가.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장애관련 교육 실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인을 대하

는 데 필요한 소양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소양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장애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종별 특성, 기초적 수화,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에 관한 것이면 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편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공분야의 사업편성에 있어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예를 들면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의 약 10%)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할당제를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때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정 부분을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청소년 수련시설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다. 특수교사는 수련시설 종사자로부터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수련시설 종사자들은 반대로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라.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 설립·운영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

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상설화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특별 기획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지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정책적 견지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장애청소년 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특성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적 연계를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과연 우리나라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그 실정이 매우 미흡한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장에서 직접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지도자들은 장애청소년 지도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장애청소년 전문지도자 연수에도 가 보았고, 특수학교 교사들의 장애학생 지도 과정에 참여하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청소년 수련활동은 보통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일반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전부일 듯하다. 비진학 근로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그리

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의 기회조차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청소년은 누구나 조건에 관계없이 같은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불리한 대접을 받아왔다면 이제라도 정부의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 것이다.

장애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몸과 마음 모두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의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을 자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은 장애청소년들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책무를 가지고 이들의 각종 수련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소외당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준과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활동을 증진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바른 인성을 가진 시민을 기르는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소외당하는 장애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찾아주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수련활동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정책 제언

연구를 마치면서 각종 문헌고찰과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도해 본 경험자와의 면담, 설문조사,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전문가 워크숍 주제발표자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수립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은 특성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적 연계를 통하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 전문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종합대책을 연구개발하고 수립하는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선택의 자발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활동시간의 적절성, 편의시설의 만족도,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재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이 이들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진행되기 보다는 시설 중심의 운영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수련활동 지도자의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성 확보,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는 종합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함께 거시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은 장애청소년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수련활동 분야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청소년 당사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고, 장애청

소년의 체험이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의 설립·운영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은 장애가 고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잔존능력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주류 속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특별기획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수련활동에 참가한 횟수를 알아본 결과 1-2회가 72%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련활동 참가경험에 대한 의견에서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하여 수련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참가했던 수련활동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상당수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이러한 활동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생활권 및 자연권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특성화로 내세울 수 있는 상설화된 수련시설이 필요하다. 이 수련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설비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시설은 장애청소년 전문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고 필요시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및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물론 특성화 시설에 종사할 전문 지도자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 이외에 타 기관에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지도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 도입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수련활동에 참가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체적 기준강화 및 시설책임자들의 인식변화 또한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공분야의 사업편성에 있어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예를 들면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의 약 10%)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할당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정책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장애청소년을 위해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각

중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때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정 부분을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현재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청소년이 아무리 사회참여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의 배제 때문에 소외된 사회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들은 사회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연히 격리된 생활환경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없이 사회로 사람만 밀어 넣는 것은 참여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장애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으로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일반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장애인의 평등은 실현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4. 청소년지도자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전문성 강화 및 인식개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장애 특성별 전문연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경진 대회 등을 통한 현장의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초청 수련활동의 경우 장애·비장애청소년들의 통합 수련활동을 확대·운영하여 일반청소년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

대하여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청소년을 대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소양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장애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별 특성, 기초적 수화,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장애청소년이 자신의 재화에 필요한 시설입소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장애청소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으며, 장애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전문연수 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청소년의 특성, 지도방법 등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은 모든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전문연수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은 장애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애청소년

년 수련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다. 특수교사는 수련시설 종사자로부터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수련시설 종사자는 반대로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과 보조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예산 등을 함께 동원하는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 연계 협력관계가 수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6.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전의 부정적이거나 편견적인 태도를 덜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장애청소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수련활동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의 설계시 자원봉사자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시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참가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영역 내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마련과 이를 위한 영속성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속적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을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정적지원이 가능한 지도자 양성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7. 지역사회중심의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시적 체험활동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장애청소년 관련조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수련활동 기회 확대, 수련활동 시 필요한 인력 수급, 그리고 정확한 임상적 관찰자로서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 수련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모의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수련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 관련 각 영역별 전문 지도자 및 상담 교사를 통하여 수련활동 지도자는 미리 장애청소년의 개별 특성 및 관련 세부사항을 이해하고, 이러한 팀 협력을 통하여 더욱 원활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청소년의 행동지원을 위한 팀 접근은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과 통합 활동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참가자들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능력 수준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장애 특성별 행동과 수련 시설 내의 환경사이의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중재와 대체행동을 목표로 환경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된 수련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프로그램이라는 응답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은 장애청소년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미래를 준비시키며,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완전한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의사결정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전문연수, 특수아동 부모교육 연수, 그리고 행동중재 및 언어치료 전문 연수 등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2002). 운영백서.
- 김병하(1985).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김삼섭(2002). 특수교육의 심리적 기초. 서울: 교육아카데미.
- 김승국(1999).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윤식(2003). 주5일제 수업과 수련활동. 청소년과 수련활동, 제2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김정배(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13(1), 133-173.
- 김진호(2002).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훈련 프로그램, 2002년도 학술대회자료집, 한국 특수교육학회. 119-138.
-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기본법.
- 문화관광부(2003a). 청소년백서.
- _____ (2003b). 청소년육성기본계획.
- _____ (2004).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관리 · 운영지침.
- 문화관광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3). 2003년도 시범 청소년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결과보고서.
- 박영균·김정열·이혜연(1999).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균·김정열·이혜연(2000).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옥화·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을중·백병수(1995). 주요국 장애인복지기본법.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박혜정(1997). 청소년 생활권 수련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은희(1999). 통합유치원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도구의 효용성 연구. 한국 정서 · 학습장애 교육학회지, 15(1), 43-55.

- 백은희(2003). 정신지체 연구의 최근 동향-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을 중심으로. *정신지체연구*, 5(1), 203-223.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2004). 학생봉사활동지도.
- 안현욱(2001).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윤점룡(1999).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의 방향. *국립특수교육원*. 125-161.
- 이석형(2000).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임안수(2004).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천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1-19.
- 장수희(2002).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대영(2001). 문제행동의 기능평가와 행동지원. 서울: 양서원.
- 정계숙·정인숙(1997). 유치원의 경증 발달지체아를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 활동중심중재의 적용. *특수교육학회지*, 18(3), 153-17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3a). 청소년정책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3b). 청소년수련활동론. 서울: 교육과학사.
- Albrecht, G. L. (1997). *The Disability Business*. Saga Library of Social Research International: SAGE Publications, 285~288.
- Amputees Coming Together (2004). *Amputee children's camp*. <http://www.amputee-coalition.org>. (2004.7.19).
- Children's Association for Maximum Potential (2004). <http://www.serve.com> (2004.5.9).
- Cummings, R. W. & Maddux, C. C. (1987).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ildly handicapped*. Charles C. Thomas.

- Guralnick, M. J. (1990). Major accomplishments and future directions in early childhood mainstreaming.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2), 1-17.
- Guralnick, M. J., Conner, R. T., Hammond, M., Gottman, J. M., & Kinnish, K. (1995). Immediate effects of mainstreamed settings on the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integration of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0(4), 359-377.
- Heck, A. O.(1953).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Book.
- Kids Health for Parents (2004). *Finding a Camp for Your Child with Special Needs*. <http://kidshealth.org>. (2004.7.24).
- Krokan, A. K.(2004). Educated to be a handicapped. *20th 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Abstract Book*, 46.
- Mekibes, B. (2004).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Swedish governmental administration. *20th 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Abstract Book*, 47
- Mission Australia (2004). Active 8. www.active8.on.net. (2004.7.27).
- National Limb Loss Information Center(2004). *Summer Camps fo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http://www.amputee-coalition.org>. (2004.6.26).
- Oliver, M.(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London : Macmillan.
- Parry, M.(1996).Scuba diving for the physically disabled. *18th 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Abstract Book*. 17.
- Szymanski, E. M. & Parker, R. M. (1993). *Rehabilitation Counseling*, Texas: Pro Ed. USA, 103~133.
- Wilds, E. H.(1956). *The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New York: Rinhart & Co.

부 록

1. 설문지
2.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3. 지역별 장애인시설 일람표

1. 설 문 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 설문조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육성과 복지, 그리고 보호에 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4년도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중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라는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의 현황을 살펴본 후 나아가 장애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수련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시되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응답은 전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오니 가능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설문조사에 기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4. 7. .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박영균 (☎ 02-2188-8824 / FAX : 02-2188-8869)

E-mail: ykpark@youthnet.re.kr

※ 다음 질문에는 청소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각종 체험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하나만 선택하여 √해 주시고 기타일 경우에는 _____에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____① 있다 (3번으로 가세요) ____② 없다 (2번으로 가세요)

2. 참가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다
 ____②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
 ____③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____④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___⑤ 참가방법을 몰랐다
 ____⑥ 기타 _____

▶▶▷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번으로 넘어가세요.

3. 지난 1년 동안 각종 수련활동에 참가한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① 1-2회 ____② 3-4회 ____③ 5-6회
 ____④ 7회 이상 ____⑤ 없음

4.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모두 선택하세요.

____①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____②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____③ 청소년특화시설(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시설-미지센터, 스스로넷, 하자센터 등)
 ____④ 유스호스텔
 ____⑤ 청소년단체(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등)
 ____⑥ 기타 _____

5. 수련활동의 주된 형식은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____① 명사 또는 선생님의 강의 ____② 토론, 토의
 ____③ 야외활동 ____④ 실내 활동
 ____⑤ 소그룹 활동 ____⑥ 기능 익히기
 ____⑦ 특성화프로그램 (연극, 장기자랑, 가장행렬, 애니메이션 활동 등)
 ____⑧ 레크리에이션 ____⑨ 기타 _____

6.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표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수련활동에 참가하였다.	5	4	3	2	1
2)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다.	5	4	3	2	1
3)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의 시간은 적당하였다.	5	4	3	2	1
4)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5)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장애인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6)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7) 현재 우리나라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만족한다.	5	4	3	2	1
8)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5	4	3	2	1
9) 예전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5	4	3	2	1
10) 학교나 그 밖의 일상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겼다.	5	4	3	2	1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장애로 인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5	4	3	2	1
12) 편안한 휴식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5	4	3	2	1
13)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5	4	3	2	1
14)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5	4	3	2	1
15) 수련활동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7. 여러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___①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___② 수련활동 지도자의 전문성
 ___③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___④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___⑤ 단위 프로그램의 소요시간
 ___⑥ 기타 _____

8.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참가비는 어떻게 부담하였습니까?

- ___① 본인 혹은 부모님 부담
 ___② 학교에서 부담
 ___③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에서 부담
 ___④ 수련활동 실시기관에서 부담
 ___⑤ 기타 _____

12. 장애청소년을 위해 특성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참가하겠습니까?

- ___ ① 꼭 참가하겠다 ___ ② 그때 생각해 보겠다
___ ③ 참가하지 않겠다 (12-1로 가세요)

▶▷ 12-1. 참가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
___ ②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___ ③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__ ④ 기타 _____

13. 앞으로 수련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싶나요?

- ___ ①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___ ②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___ ③ 청소년특화시설(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시설-미지센터, 스스로넷, 하자센터 등)
___ ④ 유스호스텔
___ ⑤ 청소년단체(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등)
___ ⑥ 기타 _____

※ 다음 질문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다음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하나만 선택하여 √해 주시고 기 타일 경우에는 _____에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4.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수련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____① 수련시설의 홍보부족 ____② 참가자의 필요성 및 인식부족
 ____③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 ____④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____⑤ 편의시설 부족 ____⑥ 참가기회 부족
 ____⑦ 기타 _____

16. 수련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만 선택하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____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
 ____② 대인관계 및 사회응용기술
 ____③ 음악·미술활동 ____④ 체육·스포츠활동
 ____⑤ 진로·직업 지도 ____⑥ 스트레스 해소
 ____⑦ 연극, 영상, 애니메이션, 창작활동 ____⑧ 기타 _____

17. 수련활동에 포함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____① 명사 또는 선생님의 강의 ____② 토론·토의
 ____③ 야외활동 ____④ 실내 활동
 ____⑤ 소그룹 활동 ____⑥ 기능 익히기
 ____⑦ 특성화프로그램 (연극, 가장행렬, 애니메이션 제작 등)
 ____⑧ 레크리에이션 ____⑨ 기타 _____

18.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____①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____②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____③ 수련활동의 균등한 참가 기회 확대
 ____④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____⑤ 수련활동 지도자의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성 확보
 ____⑥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확보
 ____⑦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접근성 확대(경사로, 엘리베이터, 인도의 턱 등)
 ____⑧ 수련시설내의 장애편의시설 확충

___ ⑨ 기타 _____

19. 장애청소년을 위해 수련활동을 실시한다면 다음 중 어느 기간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까?

___ ① 주중 ___ ② 주말
___ ③ 여름방학 ___ ④ 겨울방학 ___ ⑤ 기타 _____

20.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1시간 미만 ___ ② 1시간~2시간 ___ ③ 3시간~4시간
___ ④ 5시간 이상 ___ ⑤ 기타 _____

21.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1박 2일 ___ ② 2박 3일 ___ ③ 3박 4일
___ ④ 4박 5일 ___ ⑤ 기타 _____

22.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가장 적당한 인원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15명 이하 ___ ② 15~30명 사이 ___ ③ 30~50명 사이
___ ④ 50~100명 사이 ___ ⑤ 100명 이상

※ 다음 질문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마지막으로 응답자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를 해 주시거나 기타일 경우에는 _____에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니까?

___ ① 청소년
___ ② 특수교사(특수교사자격증 : 유____ 무____)
___ ③ 수련시설종사자(청소년지도사_사회복지사_ 기타 : _____)
___ ④ 학부모

24. 귀하의 성별은?

___ ① 여자 ___ ② 남자

25. 귀하의 만 연령은?

___ ① 14세 이하 ___ ② 15~24세 ___ ③ 25~34세
___ ④ 35~44세 ___ ⑤ 45~54세 ___ ⑥ 55세 이상

26. 귀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못사는 편 ___ ② 대체로 못사는 편 ___ ③ 보통 수준
___ ④ 대체로 잘사는 편 ___ ⑤ 매우 잘사는 편

27. 귀하의 학력은?

___ ① 초등부 재학 ___ ② 중등부 재학 ___ ③ 중학교 졸
___ ④ 고등학교 졸 ___ ⑤ 대학교 졸 이상 ___ ⑥ 기타 _____

28. 귀하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___ ① 대도시 ___ ② 중소도시 ___ ③ 농·어촌 지역 ___ ④ 기타

* * * 이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2.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1> 당신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합계)	364	100.0
1. 있다.	279	76.6
2. 없다.	84	23.4
<문 2> 참가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계)	85	100.0
1.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다.	25	29.4
2.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	14	16.5
3.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8	9.4
4. 활동보조인의 도우미 필요하기 때문이다.	21	24.7
5. 참가방법을 몰랐다.	14	16.5
6. 기타	3	3.5
<문 3> 지난 1년 동안 각종 수련활동에 참가한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합계)	279	100.0
1. 1-2회	201	72.0
2. 3-4회	37	13.3
3. 5-6회	8	2.9
4. 7회 이상	15	5.4
5. 없음	18	6.5
<문 4>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모두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336	100.0
1. 생활권 수련시설	80	23.8
2. 자연권 수련시설	157	46.7
3. 청소년특화시설	22	6.5
4. 유스호스텔	9	2.7
5. 청소년단체	44	13.1
6. 기타	24	7.1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5> 수련활동의 주된 형식은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834	100.0
1. 명사 또는 선생님의 강의	31	3.7
2. 토론, 토의	26	3.1
3. 야외활동	224	26.9
4. 실내 활동	100	12.0
5. 소그룹 활동	73	8.8
6. 기능 익히기	24	2.9
7. 특성화프로그램	168	20.1
8. 레크리에이션	175	21.0
9. 기타	13	1.6
<문 6> 수련활동에 참가한 후 느낀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표해 주세요.		
1) 나는 나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수련활동에 참가하였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4	5.0
2. 그렇다.	24	8.6
3. 그저 그렇다.	75	26.9
4. 그렇지 않다.	114	40.9
5. 전혀 그렇지 않다	52	18.6
2)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0	3.6
2. 그렇다.	33	11.8
3. 그저 그렇다.	87	31.2
4. 그렇지 않다.	106	38.0
5. 전혀 그렇지 않다.	43	15.4
3)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의 시간은 적당하였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6	2.2
2. 그렇다.	26	9.3
3. 그저 그렇다.	91	32.6
4. 그렇지 않다.	126	45.2
5. 전혀 그렇지 않다.	30	10.8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4)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7	6.1
2. 그렇다.	51	18.3
3. 그저 그렇다.	97	34.8
4. 그렇지 않다.	75	26.9
5. 전혀 그렇지 않다.	39	14.0
5)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장애인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9	6.8
2. 그렇다.	45	16.1
3. 그저 그렇다.	92	33.0
4. 그렇지 않다.	89	31.9
5. 전혀 그렇지 않다.	34	12.2
6) 내가 참가했던 수련활동은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4	5.0
2. 그렇다.	43	15.4
3. 그저 그렇다.	125	44.8
4. 그렇지 않다.	74	26.5
5. 전혀 그렇지 않다.	23	8.2
7) 현재 우리나라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만족한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22	7.9
2. 그렇다.	61	22.2
3. 그저 그렇다.	102	36.6
4. 그렇지 않다.	65	23.3
5. 전혀 그렇지 않다.	28	10.0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8)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20	7.2
2. 그렇다.	40	14.3
3. 그저 그렇다.	90	32.3
4. 그렇지 않다.	88	31.5
5. 전혀 그렇지 않다.	41	14.7
9) 예전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7	2.5
2. 그렇다.	27	9.7
3. 그저 그렇다.	98	35.1
4. 그렇지 않다.	84	30.1
5. 전혀 그렇지 않다.	63	22.6
10) 학교나 그 밖의 일상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겼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8	2.9
2. 그렇다.	33	11.8
3. 그저 그렇다.	111	39.8
4. 그렇지 않다.	86	30.8
5. 전혀 그렇지 않다.	41	14.7
11) 장애로 인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8	2.9
2. 그렇다.	41	14.7
3. 그저 그렇다.	115	41.2
4. 그렇지 않다.	73	26.2
5. 전혀 그렇지 않다.	42	15.1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12) 편안한 휴식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2	4.3
2. 그렇다.	37	13.3
3. 그저 그렇다.	74	26.5
4. 그렇지 않다.	97	34.8
5. 전혀 그렇지 않다.	59	21.1
13)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4	5.0
2. 그렇다.	53	19.0
3. 그저 그렇다.	112	40.1
4. 그렇지 않다.	62	22.2
5. 전혀 그렇지 않다.	38	13.6
14)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10	3.6
2. 그렇다.	40	14.3
3. 그저 그렇다.	118	42.3
4. 그렇지 않다.	77	27.6
5. 전혀 그렇지 않다.	34	12.2
15) 수련활동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합계)	279	100.0
1. 매우 그렇다.	6	2.2
2. 그렇다.	21	7.5
3. 그저 그렇다.	91	32.6
4. 그렇지 않다.	101	36.2
5. 전혀 그렇지 않다.	60	21.5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7> 여러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합계)	279	100.0
1.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49	17.6
2. 수련활동 지도자의 전문성	27	9.7
3.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96	34.3
4.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37	13.3
5. 단위 프로그램의 소요시간	45	16.1
6. 기타	25	9.0
<문 8.>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참가비는 어떻게 부담하였습니까?		
(합계)	279	100.0
1. 본인 혹은 부모님 부담	51	54.1
2. 학교에서 부담	46	16.5
3.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에서 부담	27	9.7
4. 수련활동 실시기관에서 부담	36	12.9
5. 기타	19	6.8
<문 9> 보기 활동영역 중 참가해 본 활동영역을 모두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456	100.0
1. 문화감성활동	102	22.4
2. 봉사협력활동	46	10.1
3. 직업준비활동	39	8.6
4. 모험탐사활동	90	19.7
5. 과학정보활동	64	14.0
6. 국제교류활동	18	3.9
7. 환경의식활동	72	15.8
8. 기타	25	5.5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10> 보기 활동영역 중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활동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순위별로 3개만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1090	100.0
1. 문화감성활동	183	16.8
2. 봉사협력활동	89	8.2
3. 직업준비활동	187	17.2
4. 모험탐사활동	213	19.5
5. 과학정보활동	159	14.6
6. 국제교류활동	138	12.7
7. 환경의식활동	109	10.0
8. 기타	12	1.1
<문 11> 수련활동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 별로 3개만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1091	100.0
1. 스트레스 해소	152	13.9
2. 즐거운 생활	221	20.3
3. 일상생활의 자신감 갖기	135	12.4
4. 여러 친구들 사귀기	169	15.5
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	157	14.4
6.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배움	99	9.1
7. 뚜렷한 삶의 목표 설정	46	4.2
8. 편안한 휴식의 기회	103	9.4
9. 기타	9	0.8
<문 12> 장애청소년을 위해 특성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참가하겠습니까?		
(합계)	364	100.0
1. 꼭 참가하겠다.	152	41.8
2. 그때 생각해 보겠다.	187	51.4
3. 참가하지 않겠다.	25	6.9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12-1> 참가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계)	25	100.0
1.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다.	12	48.0
2.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4	16.0
3.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20.0
4. 기타	4	16.0
<문13> 앞으로 수련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싶나요?		
(합계)	364	100.0
1. 생활권수련시설	69	19.0
2. 자연권수련시설	137	37.6
3. 청소년특화시설	69	19.0
4. 유스호스텔	29	8.0
5. 청소년단체	51	14.0
6. 기타	9	2.5
<문 14>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수련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634	100.0
1. 매우 필요하다.	294	46.4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247	39.0
3. 그저 그렇다.	71	11.2
4. 필요하지 않다.	15	2.4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1.1
<문 15>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1894	100.0
1. 수련시설의 홍보부족	236	12.5
2. 참가자의 필요성 및 인식프로그램	238	14.9
3.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	314	16.6
4.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376	19.7
5. 편의시설 부족	338	17.8
6. 참가기회 부족	317	16.7
7. 기타	30	1.6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16> 수련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개만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1901	100.0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	445	23.4
2.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기술	430	22.6
3. 음악·미술활동	107	5.6
4. 체육·스포츠 활동	292	15.4
5. 진로·직업지도	171	9.0
6. 스트레스 해소	242	12.7
7. 연극, 영상, 애니메이션, 창작활동	199	10.5
8. 기타	15	0.8
<문 17> 수련활동에 포함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세요.		
(합계) *복수응답	1934	100.0
1. 명사 또는 선생님의 강의	79	4.2
2. 토론, 토의	96	5.0
3. 야외활동	463	24.4
4. 실내활동	142	7.5
5. 소그룹활동	241	12.7
6. 기능 익히기	171	9.0
7. 특성화프로그램	372	19.6
8. 레크리에이션	321	16.9
9. 기타	16	0.8
<문 18>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하세요.		
(합계) *복수응답	1901	100.0
1.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459	24.1
2.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243	12.8
3. 수련활동의 균등한 참가기회 확대	193	10.2
4.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131	6.9
5. 수련활동 지도자의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성 확보	274	14.4
6.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확보	210	11.0
7.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접근성 확대	193	10.2
8. 수련시설내의 장애인시설 확충	187	9.8
9. 기타	11	0.6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19> 장애청소년을 위해 수련활동을 실시한다면 다음 중 어느 기간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까?		
(합계)	634	100.0
1. 주중	165	26.0
2. 주말	48	7.6
3. 여름방학	322	50.8
4. 겨울방학	51	8.0
5. 기타	48	7.6
<문 20>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634	100.0
1. 1시간 미만	47	7.4
2. 1시간-2시간	222	35.0
3. 3시간-4시간	244	38.5
4. 5시간 이상	100	15.8
5. 기타	21	3.3
<문 21>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에 참가할 때 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634	100.0
1. 1박 2일	134	21.1
2. 2박 3일	345	54.4
3. 3박 4일	99	15.6
4. 4박 5일	51	8.0
5. 기타	5	0.8
<문 22> 장애청소년들이 특정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가장 적당한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634	100.0
1. 15명 이하	141	22.2
2. 15-30명 사이	187	29.5
3. 30-50명 사이	174	27.4
4. 50-100명 사이	88	13.9
5. 100명 이상	44	6.9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2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합계)	634	100.0
1. 청소년	364	57.4
2. 특수교사	117	18.5
3. 수련시설 종사자	71	11.2
4. 학부모	82	12.9
<문 24> 귀하의 성별?		
(합계)	634	100.0
1. 여자	296	46.7
2. 남자	338	53.3
<문 25> 귀하의 만 연령은?		
(합계)	634	100.0
1. 14세 이하	61	9.6
2. 15-24세	317	50.0
3. 25-34세	96	15.2
4. 35-44세	101	15.9
5. 34-54세	55	8.7
6. 55세 이상	4	0.6
<문 26> 귀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634	100.0
1. 매우 못사는 편	22	3.5
2. 대체로 못사는 편	82	12.9
3. 보통수준	451	71.2
4. 대체로 잘사는 편	61	9.6
5. 매우 잘사는 편	18	2.8

조사문항	빈도(명)	비율(%)
<문 27> 귀하의 학력은?		
(합계)	634	100.0
1. 초등부 재학	11	1.7
2. 중등부 재학	227	35.9
3. 중학교 졸	116	18.3
4. 고등학교 졸	58	9.1
5. 대학교 졸 이상	211	33.3
6. 기타	11	1.7
<문 28> 귀하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합계)	634	100.0
1. 대도시	269	42.4
2. 중소도시	291	46.0
3. 농·어촌 지역	63	9.9
4. 기타	11	1.7

3. 지역별 장애인시설 일람표

< 서 울 >

◦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인강원	이묘화	1968.11.29	02)955-0526	도봉1동 381-1
	인강원	구자성	1979.1.28	02)3493-0520	
2	다니엘복지원	김성언	1955.7.6	02)445-4892	내곡동 1-1328
	다니엘	이종관	1955.7.6	02)3411-2420	
3	동천의집	성선경	1961.8.1	02)974-9577	하계동 288-1
	동천의집	이병열	1957.9.28	02)978-4288	
4	우성원	김중수	1968.5.20	02)428-0870	고덕2동 298
	우성재단	최병문	1972.5.20	02)427-3523	
5	은평재활원	윤경숙	1981.3.26	02)385-2046	구산동 191-1
	은평천사원	김영현	1961.5.10	02)356-5650	
6	신아재활원	한월섭	1975.7.7	02)400-4695	거여동 251-23
	신아원	황성수	1957.7.30	02)407-1957	
7	교남소망의집	황규인	1982.6.22	02)2602-3880	화곡 6동 960-22
	교남재단	전택부	1957.8.12	02)2606-6416	
8	임마누엘재활원	김경식	1993.2.10	02)407-0067	거여2동 251-40
	임마누엘 사회복지법인	김경식	1993.8.12	02)403-1929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맹인대리원	김원재	1973.6.25	02)939-2298	상계동 1131-41
	홍파복지원	홍영기	1973.5.16	02)938-6930	
2	한빛맹아원	반순자	1968.7.4	02)989-6017	수유1동 484-21
	한빛재단	김봉룡	1968.7.4	02)945-9650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삼성농아원	정명규	1957.3.2	02)823-2234	상도동 211-121
	삼성농아원	정명규	1967.6.28	02)823-2236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석암재활원	김성숙	1982.1.12	031)987-9324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72-4
	석암재활원	홍순자	1981.10.21	031)987-7909	
2	천애재활원	허 홍	1957.8	02)930-4635	중계동 308-3
	천 애 원	허 홍	1957.8.30	02)952-9474	
3	주몽재활원	장선옥	1985.4.1	02)427-9734	상일동 179
	주몽재단	장선옥	1958.1.31	02)481-1371	
4	삼육재활원	정창곤	1952.6.12	031)761-3636	경기 광주 초월 지월 729-6
	삼육재활센터	민균식	1952.6.12	031)763-6567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제복만	1986.1.1.	031)981-0909	김포시 양촌 양곡 490
	석암재단	홍순자	1981.10.21	031)981-6985	
2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	박옥경	1996.11.8	031)981-0908	김포시 대곶 울생 472-5
	석암재단	홍순자	1981.0.21	031)981-7909	
3	영락애니아의집	박창석	1994.7.28	02)754-8507	후암동 370
	영락사회복지재단	지선장	1957.10.1	02)752-2516	
4	쉼터요양원	김원재	1990.7.25	02)937-5057	상계동 1131-41
	홍파복지원	홍영기	1973.5.16	02)938-1917	
5	상락원	조광환	1998.6.1	02)921-6410	안암5가 10-1
	승가원	박재근	1996.2.6	02)921-6416	
6	은혜장애인요양원	강완흠	1995.3.16	033)452-6161	강원 철원 갈말읍 문혜리 산 36
	성람재단	조태영	1984.2.17	033)452-6163	
7	늘편한집	허 흥	1999.2.25	02)933-5228	중계동 308-3
	천애원	허 흥	1957.8.30	02)952-9474	
8	우성장애인요양원	김종수	1993.10.5	02)428-0871	고덕2동 298
	우성재단	최병문	1972.5.20	02)427-3523	
9	암사재활원	김세용	1992.6.1	02)441-0407	암사3동 196-1
	대한사회복지회	임채홍	1954.1	02)427-9315	
10	문혜장애인요양원	강병호	1992.1.8	033)452-7881	강원 철원 갈말 문혜리236-1
	성람재단	조태영	1984.2	033)452-3260	
11	라파엘의집	정지훈	1991.2.28	031)883-6637	경기 여주 북내 중암리 산 48-8
	하상복지회	김경무	1989.1.18	031)883-6639	
12	한사랑마을	김종우	1988.5.20	031)764-2115	경기 광주 초월 신월리 산 5-1
	한사복지재단	조종남	1955.10	031)761-7646	
13	한사랑장애영아원	이효숙	1997.5.20	031)764-2115	경기 광주 초월 신원리 산 5-1
	한국복지재단	조종남	1955.10	031)761-7646	

< 부 산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성재활원	윤경옥		051)413-4448	영도구 청학동 57번지
	천성아동재활원	윤영배	1961.2.6	051)418-4418	
2	신애재활원	박상근	1951.3.1	051)816-9128	부산진구 초읍동 525-1
	신애재활원	-	1951.3.1	051)816-9137	
3	성프란치스코의집	임태호	1995.2.27	051)622-1652	남구대연3동 390
	(재)꼰베틀알프란치 스코수도회	박영호	1968.3.25	051)622-1625	
4	소화영아재활원	김정순	1982.8.16	051)644-1729	감만1동 491-1
	(재)천주교성바오로 수녀회	이귀순	1980.3.6	051)644-0272	
5	영광재활원	임성희	1965.3.5	051) 523-5451	해운대구 반여1동 1062-32/5
	동래원	임영호	1958.11. 8	051) 523-5414	
6	아이들의 집	조은희	1988.12.10	051)542-5980	반송2동 614번지
	(재)영원한도움의 성모회	김숙자	1967.02.02	051)542-4077	
7	양지재활원	신익균	1974.8.22	051)503-6001	거제2동801-89
	양지동산	한수명	1973.12.8	051)505-1439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실로암의집	임성순	1991.12.16	051)316-1338	주례2동 239
	읍의마을	박인근	1965.1.6	051)325-1838	
2	동연요양원	김재영	1990.10.24	052)263-6466	울산 울주 두동 천전 315-1
	동 향 원	김옥남	1986.7.15	052)263-6637	

◦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마재활원	박근련	1996.7.7	051)247-4084	암남동 산 13-5
	천마	황선무	1996.7.7	051)255-6951	
2	애리원	주경중	1977.4.8	052)264-013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539-8
	한서기독교재단	박정환	1977.1.28	052)264-0139	
3	동원재활원	김재영	1986.10.27	052)263-6465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315-1
	동향원	김옥남	1986.7.15	052)263-6637	
4	성우원	김창숙	1965.2.25	051)759-9211	연산 9동10-50
	성우원	목혜수	1964.12.5	051)752-3205	
5	혜성원	김완규	1987.8.31	055)382-2818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572-7
	혜성원	황필란	1986.6.25	055)383-4332	
6	평화의집	최무경	1965.1.12	051)331-4344	북구 화명동 254
	평화의집	최무경	2000.4.24	051)332-6310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부산라이트하우스	이성일	1955.10.15	051)256-3096	암남동 180
	부산라이트하우스	김경자	1974.11.21	051)256-3519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선아원	임경실	1978.3.11	051-582-0089	장전2동 산 38-6
	선아원	송광호	1959.8.6	051-515-8108	
2	베테스다원	유옥주	1967.08.29	051-971-0330	대저1동 393-20
	베테스다	김상철	-	051-971-0382	

< 대 구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애 망 원	박현철	1980.6.1	053)763-7363	수성구 파동13
	애망원유지재단	정순모	1952.1.6	053)763-7362	
2	청구혜양원	김인호	1957.10.29	054)852-0423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09
	청구혜양원	김병진	1957.10.29	054)852-8570	
3	대구안식원	김경배	1959.6.4	053-381-1560	북현2동 45번지
	선산복지재단	김명식	1959.1.17	053-384-5213	
4	성보재활원	최옥순	1952.9.15	053-941-8328	북현2동 315번지
	성보재활원	김영수	1952.9.15	053-944-1173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일심재활원	박강수	1962.2.12	053)963-3927	각산동 896번지
	일심재활원	이문희	1962.6.29	053)962-2912	
2	자유재활원	최귀희	1979.11.18	053-791-0812	수성구 시지동 28-1
	선명복지재단	강영신	1945.8.17	053-791-4239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혜요양원	김인호	1992.9 23	054)852-0423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09
	청구혜양원	김병진	1957.10.29	054)852-8570	
2	선명요육원	강영진	1989.12.22	053-791-0813	수성구 시지동 28-1
	선명복지재단	강영신	1945.8.17	053-791-4237	
3	인제요양원	조만섭	1961.2.13	053)752-4966	수성구 수성4가 1225-2
	인제재단	조경섭	1961.2.13	053)743-9248	
4	에망요양원	박현철	1995.5.19	053)761-5980	수성구 파동 13번지
	에망원유지재단	정순모	1957.1.20	053)763-7362	

< 인 천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은 광 원	이은수	1976.06.01	032)501-0105	부평구 부개1동347번지
	은 광 원	이수영	1976.06.01	032)525-6033	
2	성린직업재활원	김영주	1971.05.17	032)422-0573	부평구 십정2동586-2
	성린직업재활원	김용해	1957.06.16	032)433-2572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 화 원	-	1980.11.15	032)574-0250	서구 석남3동 491-1
	명 화 원	최형숙	1960. 5.13	032)574-0255	
2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1985.01.17	032)889-8051	용진군 장봉리 105-1
	백십자사	임성국	1957.01.14	032)889-8128	
3	예 림 원	장영순	1982. 2.1	032)503-8516	부평구 부평6동 633
	손 과 손	장영순	1982. 2.1	032)525-6044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 명 원	임남숙	1958.1.6	032)522-8344	부평구 십정동 184
	광 명 학 원	임남숙	1960.4.1	032)511-8344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성 동 원	정 현	1953.9.21	032)522-2984	부평구 부평2동 756
	성 동 원	김재실	1956.5.2	032)515-8340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 심 원	윤옥선	1991.6.3	032)817-2070	연수구 동춘1동 산55-4
	인천다비다원	윤호중	1957.12.12	032)818-0011	
2	장봉혜림요양원	임성만	1998.5.13	032)889-8051	옹진군 장봉리 105-1
	백십자사	임성국	1957.1.14	032)889-8128	

< 광 주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행복재활원	정윤영	1957.4.22	062)225-1656	동구 학동 280
	동산보육회	정숙현	1956.12.27	062)228-3533	
2	보람의집	이태환	1998.7.16	062)944-2506	광산구 덕림동 15
	태 환 원	이태환	1996.6.25	062)944-2817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 소
	법 인 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소화천사의집	이영희	1997.5.20.	062)675-4020	봉선2동 52
	소화자매원	조철현	1985.3.16.	062)675-0805	
2	백선바오로의집	이태정	1958.4.24	062)943-3300	삼거동 산50-4
	백선사회봉사원	이귀순	1992.5.22	062)943-3100	
3	귀일민들레집	복은순	1999.10.1	062)654-0576	봉선2동 132-20
	귀일원	오북한	1985.2.24	062)654-0577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주영광원	김명숙	1962.12.31	062)373-5551	덕흥동 953-2
	금 정	김택용	1962.12.31	062)373-5551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주인화원	임창완	1963.4.1	062)943-0232	삼거동 603-1
	우 석	김택룡	1962.12.31	062)944-6165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행복요양원	박윤택	1990.3.15	062)225-1656	동구 학동 280
	동산보육회	정숙현	1956.12.27	062)228-3533	
2	세 광 원	김행자	1992.6.10	062)943-5416	덕림동 산140
	세 광 원	김영주	1990.4.9	062)943-0350	

< 대 전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성세재활원	박이영	1962.8.20	042)543-2121	유성구 용계동 319-3
	성재원	남시균	1965.3.30	042)543-2123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한뜻마을	김정기	1995.9.28	042)585-3342	장안동513-1
	한 마 음	유광운	1988.12.1	042)582-7582	
2	온달의집	송명호	1968.12.1	042)625-3005	대화동 39-1
	천성원	김병화	1968.12.1	042)621-4425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한마음복지원	유광협	1989.12.21	042)585-0781	장안동 513-1
	한마음	유광운	1988.12.1	042)582-7582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정화원	송명호	1963.9.16	042)624-3008	대화동 39-1
	천성원	김병화	1968.12.1	042)621-4425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한몸요양원	김정기	1992.10.14	042)583-4472	장안동 513-1
	한마음	유광운	1988.12.1	042)582-7582	
2	평강의집	윤진순	1996.1.1	042)625-3007	대화동 39-1
	천성원	김병화	1968.12.1	042)621-4425	

< 울 산 >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메아리동산	송창길	1981.1.15	052)295-9069	중산동 492-2
	메아리복지원	김진규	1980.11.13	052)295-9069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태연재활원	이동성	1988.2.17	052)298-3701	북구 산하동 161-1번지
	태연학원	이연숙	1987.11.12	052)298-6939	

< 경 기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회원	안순녀	1971.5.5	031)406-1134	사동 1273
	명회원	김숙자	1967.11.14	031)406-9538	
2	우주	김순암	1989.7.21	031)338-8855	양지면 주북리 141-4
	우주	손정희	1987.7.16	031)338-8860	
3	향림재활원	조문화	1986	031)762-8585	실촌면 연곡리 산2
	향림원	김문동	1953	031)764-8585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수봉재활원	김동국	1991.9.30	031)293-4298	권선구 탑동 516-1
	자 행 회	박하순	1966.1.15	031)292-8701	
2	부천혜림원	임성현	1976.10.16	032)666-7990	소사구 심곡본동 523-99
	백십자사	임성국	1957.1.14	032)612-6766	
3	동방재활원	김영관	1986.9.26	031)655-5382	소사동 106-1
	동방사회복지회	김득황	1977.3.18	031)653-5382	
4	홀트일산복지타운	최영대	1960.12.15	031)914-6631	일산구 탄현동 41-1
	홀트아동복지회	조기홍	1960.12.15	031)914-1222	
5	애덕의집	양영자	1991.10.23	031)962-4450	덕양구 486
	천주교센쉴수도원 유지재단	서미원	1991.10.23	031)964-1802	
6	신망애재활원	박춘화	1983.10.31	031)594-6644	수동면 입석리 522번지
	신망애재활원	김양원	1983.8.12	031)593-6688	
7	성심동원	김연순	1979.5.14	031)374-3423	가수동 90번지
	성심동원	김연순	1974.6.15	031)374-3422	
8	가없이 좋은곳	선제철	1978.10.6	031)958-7002	법원읍 금곡리 428-1
	주내자육원	임인명	1958.4.23	031)959-7007	
9	평화재활원	변현구	1999.6.12	031)884-0556	점동면 청안리 산29번지
	오순절평화의마을	오수영	1987.8.15	031)884-0535	
10	동산원	서정희	1982.	031)764-6892	광주읍 탄벌리 674-1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서정희	1977	031)765-4531	
11	창인재활원	이경학	1999.3.4	031)772-4964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산 9
	창인원	이경학	1991.4.25	031)772-7734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에바다농아원	-	1970.12.1	031)668-5667	진위면 하북리 72
	에바다복지회	이성재	1963.9.13	031)668-0818	
2	성요셉의집	양선자	1991.10.22	031)653-3169	원곡면 내가천리 117
	서울포교성베네딕트수녀회	이숙자	1990.7.2	031)651-5331	
3	운보원	이태영	1993.10.19	031)531-2161	내촌면 마명리 120-8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운보원	김 완	1960.5.17	031)531-2163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소망재활원	고부성	1984.4.12	031)741-3001	금광2동 3957
	양친사회복지회	김경모	1974.6.15	031)736-3010	
2	부천혜림요양원	임성현	1991.3.13	032)666-7990	소사구 심곡본동 523-99
	백십자사	임성국	1957.1.14	032)612-6766	
3	홀트일산요양원	최영대	1999.1.1	031)914-6632	일산구 탄현동 41-1
	홀트아동복지회	조기홍	1999.1.1	031)914-1222	
4	신망애요양원	김양원	1989.2.2	031)594-6655	수동면입서리 522
	신망애복지재단	김양원	1983.8.12	031)593-6688	
5	요한의집	하현희	1994.5.16	031)339-0606	포곡면 삼계리 327
	천주교인보회	이행자	1990.7.16	031)339-0609	
6	해처럼밝은곳	김원녀	1992.6.1	031)959-7008	법원읍 금곡리 428-1
	주내자육원	임인명	1958.4.23	031)959-7007	
7	혜성원	이창욱	1996.3.6	031)672-2284	양성면 장서리 336
	혜성원	이창욱	1994.12.12	031)674-8074	
8	요셉의집	김재신	1998.1.21	031)879-1065	백석면 연곡리 49-1
	예수교장로회자선사업재단	윤이근	1971.5.6	031)879-0271	
9	여주천사들의집	한명옥	1998.3.27	031)884-0533	점동면 청안리 산29번지
	오순절평화의마을	오수영	1987.8.15	031)884-0535	
10	향림요양원	김문동	1993.12.27	031)763-2456	실촌면 연곡리 80-1
	향림원	김문동	1956.12.12	031)764-8585	
11	노아의집	김창언	1997.12.26	031)534-3884	신북면 갈월리 441
	김옥이재단	김창언	1961.2.13	031)536-2129	
12	가평꽃동네	김연자	1993.3.21	031)589-0180	하면 하판리 134-14
	청주교구	장봉훈	1995.3.27	031)589-0182	
13	창인요양원	이경학	1992.11.20	031)772-4964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산 9
	창인원	이경학	1991.4.25	031)772-7734	
14	엘리엘동산	권대관	2000.1.1	031)631-6644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84-1
	일이엘동산	신화석	1999.11.5	031)594-7755	

< 강 원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강원재활원	홍기중	1984.4.20	033)242-1602	신북읍 산천리 345-4
	남강애육원	홍우열	1957.6.3	033)241-3201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밀알재활원	박기원	1995.1.25	033)261-3112	신동면 혈동리 116-1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장 익	1993.12.15	033)261-3114	
2	천사들의집	최기식	1990.1.8	033)731-1004	봉산동 753-1
	원주가톨릭	김지석	1987.12.14	033)731-1005	
2	요셉재활원	백학현	1999.1.18	033)731-7857	호저면 광격리 628-2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김지석	1988.6.24	033)731-7859	
3	애향원	박진철	1996.8.12	033)462-8594	기린면 북2리 431번지
	애향원	김경식	1994.10.10	033)462-8595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중증요양원	최기식	1990.12.20	033)731-1004	봉산동 753-1
	원주가톨릭	김지석	1987.12.14	033)731-1005	
2	늘사랑의집	신순자	1998.1.23	033)644-5000	강동면 심곡리 3-1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1987.2.19	033)644-5002	
3	양양복지원	함영길	1992.6.1	033)671-6820	양양군 서면 논화리 183-1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1987.2.19	033)671-6822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계명복지원	박승명	2000.2.17	033)253-3012	우두동 410-25
	계명복지원	박승명	1999.4.3	033)256-3549	

< 총 복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송덕재활원	안수일	1981.6.22	043)847-9405	봉방동 404
	송 덕 원	길동수	1980.2.29	043)855-5992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요셉의집	이원희	1979.12.31	043)262-7415	신봉동 146-7
	충북재활원	강홍조	1979.12.31	043)262-7411	
2	세하의집	박경희	1987.7.22	043)643-5472	흑석동 45-1
	금장학원	신상숙	1985.10.31	043)643-0695	
3	살레시오 집	배은하	1998.1.1	043)653-7523	봉양면 구학리 541-1
	원주가톨릭	김지석	1988.6.7	043)651-3457	
4	청 산 원	최덕윤	1974.4.8	043)733-3456	옥천읍 삼청리 산47-2
	영생재단	최석윤	1973.10.23	043)731-8260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충북광화원	조재명	1958.7.3.	043)253-7761	상당구 탑동 185-2
	충북광화원	정광윤	1957.8.9.	043)253-7595	
2	성심맹아원	박관희	1975.11.1	043)843-1432	호암동산42-8
	청주교구청	장봉훈	1961.3.31	043)851-2174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성심농아원	권영희	1971.3.27.	043)851-1336	교현2동 640-2
	청주교구청	장봉훈	1961.3.31	043)847-7434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소 망 원	조재명	1992. 4. 6.	043)253-7761	상당구 탑동 185-2
	소 망 원	정광윤	1992. 4. 6.	043)253-7595	
2	마리아의집	이원희	1990. 3.26	043)262-7416	신봉동 146-7
	충북재활원	강홍조	1979.12.31	043)262-7411	
3	나눔의집	박만원	1985. 1. 1.	043)843-9912	호암동 751-8
	승 덕 원	길동수	1950.4.27.	043)843-9911	
4	이하의집	박경희	1995.10.27	043)643-5472	흑석동 45-1
	금장학원	신상숙	1985.10.31	043)643-0695	
5	성보나의집	이애경	1990.7.27	043)254-5149	가덕면 내암리 2-4
	성가수녀회	김정옥	1981.6.10.	043)254-3156	
6	꽃동네장애인요양원	장영숙	1990. 5 .5.	043)879-0122	음성읍 동음리 127-20
	청주교구청	장봉훈	1961.3.31	043)877-7742	

< 총 남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천안죽전원	심홍식	1994.7.2	041)555-5444	구성동 107-8
	삼화복재단	정일순	1991.7.29	041)555-5441	
2	서림복지원	임석노	1987.8.13	041)663-6423	음암면 율목리 산 22
	서림복지원	임석노	1984.12.4	041)663-8684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명주원	이원재	1982.6.19	041)857-7296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68
	명주원	이선자	1961.3.21	041)857-7120	
2	충남정심원	박현숙	1967.10.5	041)933-1717	주교면 관창리 산14
	모령학사	권호선	1954.12.15	041)933-8838	
3	성모복지원	안숙영	1996.9.20	041)543-7861	영인면 성내리 49-2
	성모복지원	이재청	1995.2.28	041)543-7862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동곡요양원	박옥분	1983.12.23	041)857-7121	반포면 송곡리 188-7
	명주원	이선자	1961.3.21	041)857-7121	
2	정심요양원	박현숙	1990.2.1	041)933-1717	주교면 관창리 산14
	보령학사	권호선	1954.12.5	041)933-8838	
3	서림요양원	임태민	1990.8.3	041)663-7368	음암면 율목리 산 22
	서림복지원	임석노	1984.12.4	041)663-8684	
4	성모의마을	산내화자	1992.12.21	041)732-0889	상월면 대촌리 122-1
	성모의마을	경갑룡	1995.6.9	041)733-0587	
5	양지요양원	여운승	1995.11.28	041)862-7002	전동면 송성리 650-2
	천성원	김병화	1972.12.11	041)862-7007	

< 전 북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동그라미재활원	배현정	1998.2.7	063)835-7300	석왕동 1-5
	중도원	서금성	1997.4.21	063)835-7350	
2	국제어린이재활원	김순옥	1952. 2. 1	063)263-4352	고산면 삼거리 산 15-6
	국제어린이재활원	김순옥	1959. 9. 2	063)263-4351	
3	영광의집	나난희	2000.6.12	063)545-1223	입석동 653-6
	기독교영광의집	김석규	2000.5.9	063)545-1225	
4	자애원	손정려	2000.4.17	063)536-1451	고부면 덕안리 9-15
	정읍자애원	곽영훈	-	063)536-1452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자립재활원	김재필	1980.12.20	063)223-1568	완산구 효자동 3가 478-6
	전주자립원	김 훈	1953.11.18	063)225-7660	
2	작은자매의집	문정현	1986.4.16	063)834-3555	익산시 월성동 181-1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이병호	1994.5.24	063)834-0441	
3	캐더린목양원	김소인	2000.1.27	063)466-6088	회현면 중석리 58-8
	구세군복지재단	이성덕	1977.1.28	063)466-6088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전북보성원	조순화	1965.6.12	063)835-1752	석암동 358-25
	전북보성원	권영조	1965.1.23	063)835-1753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영산원	김윤배	1967. 5. 6	063)835-2627	익산시 덕기동751-5
	영산원	송복순	1967. 2. 1	063)835-1920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자립요양원	심명숙	1987. 7. 1	063)223-1568	완산구 효자동3가 478-6
	전주자립원	김 훈	1953.11.18	063)225-7660	
2	영산의집	김윤배	1996. 1. 10	063)831-5949	익산시 덕기동 751-5
	영 산 원	송복순	1967. 2. 1	063)835-1920	
3	어린이새힘원	김순옥	1990. 10. 5	063)263-4911	고산면 삼기리 12
	국제어린이재활원	김순원	1959. 9. 2	063)263-4351	

<전 남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목포소망장애복지원	정종록	1996.1.11	061)273-0780	목포시 대양동 797-14번지
	목포 소망원	한중석	1961.4.15	061)276-0606	
2	애양재활직업보도소	유경운	1989.5.8.	061)752-4716	순천시 매곡동 167-1
	애 양 원	김익동	1974.3.1.	061)752-2734	
3	동백원	김영환	1988.1.11	061)683-0678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48
	송정희	김홍용	1963.9.9	061)685-3751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공생재활원	윤향미	1985.12.31	061)246-2036	목포시 달동 845-1
	공생복지재단	임동신	1928.10.15	061)246-4689	
2	성 산 원	나종학	1995.3.8	061)332-9968	나주시 삼영동 산 44
	계 산 원	김계윤	1989.11.1	061)333-9967	
3	곡성삼강원	강인형	1984.12.7	061)363-2346	곡성읍 죽동리 6
	곡성삼강원	강인형	1951.3.15	061)363-5088	

◦ 시각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광 명 원	하제룡	1953.08.27	061)462-7356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442-3
	목포광명원	박준식	1957.09.20	061)462-7141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목포농아원	이정숙	1955. 5.10	061)462-6306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5-1
	소 립	이영휴	1957. 8. 9	061)462-6944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목포장애인요양원	정영걸	1991.8.1	061)453-3726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73-2
	공생복지재단	임동신	1928.10.15	061)454-2454	
2	나주계산요양원	나중학	1990.8.23	061)332-9967	나주시 삼영동 산 44
	계 산 원	김계운	1989.11.1	061)333-9967	
3	동백요양원	윤명숙	1990.3.21	061)684-2468	여수시 소리면 관기리 348
	송정회	김홍용	1963.9.9	061)685-3751	

< 경 복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마리아의 집	김정숙	1984.10.24	054)272-0586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번지
	성모자애원	이정순	1984.5.15	054)282-7767	
2	안동재활원	김윤동	1986.11.24	054)841-5862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77-2
	안동재활원	김윤동	1979.1.12	054)841-6816	
3	국제재활원	김은화	-	054)954-4176	성산면 어곡리 9
	성요셉복지재단	이문희	1957.2.27	054)954-4946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선인재활원	박창숙	1998.7. 21	054)751-8895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93번지
	상 록 수	박선웅	1997.8.21	054)751-8854	
2	애명복지촌	배영호	1987.12.22	054)858-8871	북후면 도촌리 846-1
	애명복지촌	배연창	1986.7.2	054)858-8874	
3	팔레스	류상덕	1997.11.27	054)332-2841	북안면 도천리 412
	창파재단	고은애	1996.11.20	054)332-2845	
4	대동시온재활원	신명도	1982.1.15	053)853-3779	진량읍 양기리 산3
	대동시온재활원	장재원	1958.12.28	053)851-9878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안동요양원	김춘식	1990.7.1.	054)841-5862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77-2번지
	안동재활원	김운동	1979.1.12	054)841-6816	
2	애명요양원	김영환	1990.7.30	054)858-8871	북후면 도촌리 846-5
	애명복지촌	배연창	1986.7.2	054)858-8874	
3	성락원	강조자	1953.3.11	053)814-3226	신천동 산27-2
	성락원	백영기	1955.12.13	053)813-7981	
4	대동요양원	신명도	1993.4.15	053)853-3779	진량읍 양기리 산3
	대동시온재활원	장재원	1958.12.28	053)851-9878	
5	덕산요육원	김상조	1994.5.12	054)954-4176	성산면 어곡리 9
	성요셉복지재단	이문희	1957.2.27	054)954-4946	
6	사랑마을	박승탁	1997.11.1	054)653-6700	용궁면 무지리 255-2
	애명복지촌	배연창	1986.7.2	054)653-6116	
7	루도비꼬집	이정순	2000.2.25	053)813-2258	압량면 당리리 492
	성모자애원	이정순	1954.5.15	053)813-2258	

<경 남 >

◦ 지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홍익재활원	임중기	1979.3.24	055)286-1117	신촌동 30
	선린복지재단	최행진	1958.6.26	055)286-1119	
2	자생원	한삼주	1951.8.10	055)645-2511	정량동156
	자생원	한삼주	1963.8.22	055)646-2031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진해재활원	박종갑	1959. 8.13	055)546-2622	태평동 16번지
	진해재활원	박종갑	1993. 11.3	055)546-2622	
2	천사의 집	김석좌	1992.7. 7.	055)672-6608	마암면 신리 산 145-1
	범숙	김석좌	1992.3.20	055)672-6607	
3	애 광 원	김임순	1955.9.21	055)681-7524	장승포동 521-4
	거제도애광원	심치선	1955.5.4.	055)682-1399	
4	소망의집	전석자	1992.3.10	055)574-3633	가례면 개승리 143-1
	경남복지마을	서익수	1958.2.24	055)574-7533	
5	치자마을	김정년	2000.6.23	055)632-1854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346
	내원	김정년	1998.4.6	055)632-8350	

◦ 청각·언어장애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무궁애학원	이금지	1982.8.30	055)382-9896	물금읍 범어리 산62-8
	무궁애학원	박재석	1957.9. 7	055)387-6698	

◦ 장애인요양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늘 푸 른 집	조태우	1995.1.16	055)374-6126	상북면 내석리 102-1
	신 생 원	도말순	1957.10.21	055)374-6123	
2	민들레집	김만순	1986.10.16.	055)681-7524	장승포동 521-4
	거제도애광원	심치선	1955.5.4.	055)682-1399	
3	성심인애원	임성일	1995.6.21	055)973-6966	산청읍 내리100
	프란치스코회	김찬선	1959.6.19	055)973-6967	

< 제 주 >

◦ 정신지체인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FAX번호	
1	아가의집	강종숙	1988.2.2	064)783-9000	조천읍 함덕리20-2
	혜정원	김희숙	1988.2.2	064)783-9255	

【연구요약】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모았다.

□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현황과 주요 내용, 정부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수련시설에서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등 실태를 파악하였다.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이나, 실시방법, 실시 기간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 많은 현실적 문제를 만날 수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모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

①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장애청소년이 364명(57.4%)이었고, 특수학교 교사가 117명(18.5%), 수련시설 종사자가 71명(11.2%), 그리고 장애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82명(12.9%) 등 모두 634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63.2%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85.7%였다.

② 수련활동 참가경험

조사대상 청소년 364명 가운데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279명(76.6%)이었고, 한번도 참가해보지 못한 청소년은 85명(23.4%)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전체 청소년들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수련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수련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29.4%는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24.7%는 수련활동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련활동에 대한 흥미 부족과 참가방법을 몰랐다는 반응이 각각 16.5%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참가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54.1%의 응답자들이 ‘본인 또는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나 기타 시설에서 자체 부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가해 본 영역은 사진촬영, 민속답사, 민속공예 등의 문화감성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모험탐사활동, 환경의식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직업준비활동, 기타 순이었다.

③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

장애청소년들이 앞으로 참가하기 원하는 수련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즉 모험탐사활동(19.5%), 직업준비활동(17.2%), 문화감성활동(16.8%), 과학정보활동(14.6%), 국제교류활동(12.7%), 환경의식활동(10.0%) 등의 순으로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즐거운 생활’(20.3%), ‘여러 친구 사귀기’(15.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14.4%), ‘스트레스 해소’(13.9%) 등의 순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에 대한 의견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수련활동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전체의 46.4%가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9.0%로 대부분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수련활동의 필요성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수교사와 수련시설 종사자 집단이 가장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이 학부모와 청소년 순이었다.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족’(19.7%), ‘편의시설 부족’(17.8%), ‘참가기회 부족’(16.7%),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집단별 의견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여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인프라 문제

장애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수련활동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및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설립주체가 국립이므로 그나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기타 수련시설의 편의시설은 대부분 매우 부족하다.

②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문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에 대한 부담을 가

지고 있다. 즉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과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비장애청소년과 주민들의 인식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장애가 없는 일반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생활권 수련시설에 장애청소년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지도자들이 기초적인 수화나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① 수련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 연구에서 주장한 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상의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소 의무기준을 연간 수련인원 중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놓음으로써 장애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의 참가를 확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②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

각급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장애 특성별 전문연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의 경우 장애·비장애청소년들의 통합 수련을 확대·운영하여 일반청소년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하며, 더욱 긍정적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장애관련 교육 실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인을 대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소양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장애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종별 특성, 기초적 수화,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에 관한 것이면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편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공분야의 사업편성에 있어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예를 들면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의 약 10%)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할당제를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청소년 수련시설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다. 특수교사는 수련시설 종사자로부터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수련시설 종사자들은 반대로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⑥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 설립·운영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상설화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특별 기획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지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⑦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정부는 정책적 견지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장애청소년 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특성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적 연계를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1.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특성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적 연계를 통하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2.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특성화 시설 설립·운영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은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특별기획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 도입

장애청소년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공분야의 사업편성에 있어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예를 들면 전체 프로그램의 약 10%)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할당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4. 청소년지도자의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장애 특성별 전문연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청소년 초청 수련활동의

경우 장애·비장애청소년들의 통합 수련을 확대·운영하여 일반청소년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5. 청소년수련시설과 장애청소년 전문기관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은 장애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애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교사는 수련시설 종사자로부터 장애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수련시설 종사자는 반대로 장애청소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6.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전의 부정적이거나 편견적인 태도를 덜 갖게 된다고 한다. 학교나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시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7. 지역사회중심의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시적 체험활동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장애청소년 관련조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 수련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모의 참가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수련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은 장애청소년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해 주고, 미래를 준비시키며,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한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목적은 완전한 사회 통합이며, 완전한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의사결정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전문연수, 특수아동 부모교육 연수, 그리고 행동중재 및 언어치료 전문 연수 등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필요하다.